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경 희 교수 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202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송 연 재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 경 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송 연 재


인 준 서


송연재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10월

심사위원장 김 주 력 

심사위원 한 지수 

심사위원 최 정순 

심사위원 이유나 

심사위원 김 경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인간에게 자신의 능력, 흥미, 가치관과 성격을 고려하여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자아실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또한 개인이 원치 않는 직업과 진로는 자아실현 및 심리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시기이지만, 다수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청소년기 진로 선택 과정에서 자신의 소질에 맞는 진로를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하기보다는 입시 성적 위주의 대학 진학으로 인한 부적응 문제를 겪고 있다.

미용 전공 대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비용과 시간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다른 분야의 직업으로 전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용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미용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남·여 대학생 63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방법은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진로장벽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대인관계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자기 명확성 부족, 흥미 부족, 직업정보 부족, 미래 불안의 7가지 요인을 사용하였다. 진로성숙도는 자립성, 확고성, 계획성 3가지 요인을 사용하였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계획수립, 자기평가, 목표선택, 정보수집의 4가지 요인, 진로준비행동은 정보수집행동, 실천적 노력행동 2가지 요인으로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용 전공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차이에서는 학년이 높고, 전공 만족도 낮을수록 진로장벽이 높았다. 또한 4년제 학생들은 2년제 학생들보다 진로장벽은 낮고,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서는 높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둘째, 미용 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항상 부정적인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력과 부적 영향력을 갖는 요인들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획일화된 진로상담이 아닌, 개인 상황에 맞춰 차별적인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진로장벽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용 전공 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계획수립에 대한 진로성숙도의 확고성 및 계획성에 유의미한 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기평가는 확고성, 계획성, 자립성이 유의하였다. 목표선택 중 진로성숙도 모든 변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수집은 확고성, 계획성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미용 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장벽 요인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자기 명확성 부족, 흥미 부족, 직업정보 부족이 유의하였고, 진로성숙도의 모든 요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미용 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따라 정보수집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에서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자기명확성 부족, 흥미 부족, 직업정보 부족에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천적 노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에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기명확성 부족, 흥미 부족에 완전 매개효과가 있었다.

여섯째, 미용 전공 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확고성, 계획성에 대해서만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는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촉매제 역할을 하여 자각된 진로장벽의 효과는 완화시키고, 진로성숙도의 효과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미용 전공 대학생에 대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미용 전공 대학생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벽에 대한 정보와 주도적인 취업 준비 활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지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1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4
II. 이론적 배경	5
1. 진로장벽	5
2. 진로성숙도	12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9
4. 진로준비행동	26
III. 연구방법 및 절차	35
1. 연구문제	35
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36
3. 자료분석	36
4. 측정도구	37
IV. 연구 결과 및 논의	40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0
2.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요인분석	43
3.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분석	54
4.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	74
5.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 및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76
6.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 및 진로성숙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88
 V. 결 론	 102
1. 결론	102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105

참 고 문 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설문지의 구성	39
〈표 2〉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41
〈표 3〉 진로장벽 질문지의 요인분석	45
〈표 4〉 진로성숙도 요인분석	48
〈표 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분석	51
〈표 6〉 진로준비행동 요인분석	53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장벽 차이분석	59
〈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분석	63
〈표 9〉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차이분석	67
〈표 10〉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차이분석	72
〈표 11〉 상관관계 분석	75
〈표 12〉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79
〈표 13〉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82
〈표 14〉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85
〈표 15〉 진로성숙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87
〈표 16〉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 중 정보수집행동에 미치는 영향	91
〈표 17〉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 중 실천적 노력행동에 미치는 영향	95
〈표 18〉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 중 정보수집행동에 미치는 영향	98
〈표 19〉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 중 실천적 노력행동에 미치는 영향	10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하여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이다.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변화하는 상황에서 기회의 폭은 넓어졌으나 새로운 정보를 찾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박종옥, 2016).

최근 고용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청년실업률의 증가는 대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대학에서 학과 특성화 차원에서 진로 문제를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2019년 12월 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는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IMF 사태와 비견할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은 비대면 상황에 따른 채용시스템 변혁을 가져왔고 한국경제연구원(2021, 검색일자 : 2021. 01. 11)에서 실시한 전국 대학 재학생들의 취업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사실상 구직을 단념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 절반 이상이 진로나 전공 변경을 고민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뉴시스, 2021, 검색일자 : 2021. 01. 17).

특히 국내 미용 전공 대학생은 다른 전공자에 비하여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학 후 실기 중심의 실용 학문의 특성으로 이루어진 교과에 대한 부적응 및 자신감 상실로 학업 포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전현진, 2015). 또한 졸업 후 숙련과정에서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미용의 직무 특성으로 인해 전공자들은 진로 결정을 앞두고 갈등을 겪게 되고, 전공 분야로 진출하였더라도 현장에 부적응하여 중도 포기

하는 경우들이 있다(권은숙, 2015).

미용 전공 대학생들은 오랜 시간 실기 능력 향상을 위한 연습과 훈련을 하였으므로 취업률이 낮다고 해서 전공을 바꾸거나 새로운 전공을 습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며, 취업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울감이나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학생들이 미용 관련 학과 졸업 후 다시 적성과 진로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비효율적인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다(이미지 외, 2016). 또한 학생상담센터 활동 보고에 따르면 대학 재학 중 교수와 개인 상담을 하는 원인 중 1/3이 진로 및 적성에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어(방효진, 박정신, 2014), 학교 재학 중 학습에 대한 부담과 진로 결정하고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문제와 관련되어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진로 및 취업 지도에 있어 진로탐색행동과 같은 실천적인 행동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최동선, 2003), 진로를 결정하는 것에서 개인의 인식이나 태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실제로 실천해야 하는 준비행동 등을 인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진로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진로준비행동과 관련이 깊은 변인으로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진로결정자기 효능감 등이 있다.

진로장벽은 취업의 과정에서 진로선택과 목표, 행동의 동기 등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진로장벽이 높을 때 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하거나 무단결석, 자퇴, 전공 변경 등 미래에 향한 꿈을 회피하거나 포기한다고 하였다(이영일, 2015). 진로결정 과정에서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인 중 하나인 진로성숙도는 개인의 발달 정도를 말하며,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자신과 자기 주변에 대한 이해가 높아 자신이 처한 발달 단계에서 환경이 요구하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백연옥, 심혜숙, 2015). 자아에 대한 이해와 주변 환경을 인식하여 바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의 영향 관계를 밝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로와 관련된 과제를 완벽하게 마칠 수 있다고 느끼는 자기 자신감의 정도를 의미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발달에 큰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정진선, 2001; 김선경, 2017), 미용 현장에 적응하고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목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진로상담 및 교육 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고려한 적절한 개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 관련 연구에 중요한 매개변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미용 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또한 진로장벽 및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용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변인들이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있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을 통해 향후 학생들의 진로 준비와 관련된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검증된 인과관계를 알아보고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토대를 이루는 문헌조사를 위하여 국내·외 전문 서적, 연구 논문,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여 미용 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개념과 구성요소를 이론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미용 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전공 분야를 헤어, 메이크업, 네일, 피부로 분류하고 측정 도구를 제시하여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한다.

셋째, 앞에서 제시된 각 변인들 간의 차이를 조사하며 미용 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 및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넷째, 본 연구의 결론과 한계점 및 제언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진로장벽

1) 진로장벽의 정의

진로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의 생애 직업발달과 그 과정 내용을 이르는 포괄적인 용어으로써 사람이 일생을 통하여 살아가는 방향을 말하며, 장벽이란 장애가 되는 것 또는 극복하기 어려운 것(네이버 어학사전, 검색일자 : 2021. 01. 17)이라고 한다. 즉, 진로장벽(Career Barriers)은 진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상황이나 가정, 직장 나아가 사회생활의 준비와 실천을 가로막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 관련 장벽에 관한 초기 심리연구자들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등과 경력 개발에 대한 사회학적 장벽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하기 시작하였다(Betz & Fitzgerald, 1987). Crites(1969)는 진로장벽을 개인의 진로 준비에 있어서 목표실현을 방해하거나 직업 선택 과정을 막는 요인들을 방해조건(Thwarting Conditions)으로 칭하였다.

장벽은 경력 결정에서 영향력 있는 요소로 인식되어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Swanson & Tokar(1991b)는 진로 발달에 대한 방해물을 진로장벽으로 제안하였으며, 장벽에 대한 인식과 성별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진로장벽 검사(CBI: Career Barriers Inventory)를 개발하였다.

이후, Luzzo(1997)는 대학생의 학업 능력과 재정적 문제, 미래의 경력 관련 장벽 등 직업적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장벽(Barriers) 또는 자각된 장벽(Perceived barrier)으로 명명되기도 하였다.

Swanson et al.(1996)의 연구에서는 경력 관련 장벽에 대한 인식 평가를 통해 CBI를 수정함으로써, 진로장벽검사 개정판(CBI-R: Career Barriers Inventory Revised)을 제시하였고 진로장벽에 대하여 직업이나 진로 계획의 진전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 발달을 방해하는 내적 및 외적 조건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이 가진 심리적 변인이나 정서, 인지 양식에 따라 장벽을 자각하는 정도와 대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London, 1997). 또한 Swanson & Woitke(1997)는 진로장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 환경 자체보다는 그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는지 등의 인지된 장벽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손은령(2001)은 개인의 진로 목표, 실현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하는 내적, 외적 요인을 진로장벽이라고 하였다. 즉, 진로와 관련된 계획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를 방해한다고 인식되는 부정적인 문제나 사건을 의미한다(김은영, 2001).

진로장벽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의 내적 장벽과 외부의 환경 또는 조건을 진로장벽의 개념 안에 포함하고 있다(손은령, 2001; 김은영, 2001). 여기에서 내적 장벽은 진로 발달을 방해하는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이며, 외적 장벽은 주로 작업상 차별이나 환경에서 발견될 수 있는 장벽을 말한다. 이러한 장벽들은 진로 선택, 취업, 진학 등의 여러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고, 직장생활을 하거나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하고자 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선중, 2005). 즉,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 발달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 내적이거나 외부 환경적인 조건이나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진로장벽의 구성요소

진로장벽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분류법과 평가도구들이 개발되었다. 연구 초기에는 이분법을 사용하여 진로에 대한 장벽을 사회·경제·문화적 구조, 회사 내 차별, 근무조건에서 초래되는 외적 요인과 자아개념, 가치관, 성취동기와 같은 개인 특성과 연관된 내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강혜순, 2015). 그러나 이분법이 너무 단순하게 구분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삼분법적 분류가 등장하였고, Swanson & Tokar(1991b)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첫 직장을 구할 때 자각되는 장벽을 태도 장벽, 사회대인적 장벽, 상호작용적 장벽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Slaney(1980)는 실제 작업 현장에서 자각되는 장벽을 토대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다원적 분류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진로장벽의 요인을 차별, 기회와 관련된 문제, 경제적 문제, 대인 문제, 개인 내적 문제, 직무 관련 문제, 학교와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와 특정한 문제로 구분하였다.

Swanson et al.(1996)의 연구에서 70문항으로 구성된 CBI-R을 개발하고 성차별, 자신감 부족, 다중역할 갈등, 자녀와 진로 요구 사항 간의 갈등, 인종차별, 부적절한 준비 등 총 13개의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다원적인 분류법을 따르고 있으며, 손은령(2001)은 CBI-R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진로장벽 항목들을 추출하여 진로장벽 검사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차별, 다중 역할로 인한 갈등, 개인 특성의 부족,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 특성의 부족, 노동 시장 및 관습의 제약, 미결정 및 직업 준비 부족, 기대보다 낮은 직업 전망, 여성 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총 8가지의 요인으로 나누었다.

김경수(2010)는 체육전공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고자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하위요인은 정보 부족, 대인관계의 어려움, 다

중역할 갈등, 전문적 소양 부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사회 인식 문제, 경제적 어려움, 주위의 기대, 흥미 부족 총 9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정환호(2016)의 연구에서는 음악 전공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을 분석하기 위해 진로장벽의 요인을 대인관계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자기 명확성 부족, 흥미 부족, 직업정보 부족, 미래 불안 총 7개의 요인으로 나누었다.

이는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진로장벽의 구성요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Lent et al.(2000)의 경력개발 영향 연구에서는 개인이 가진 심리적 변인과 정서, 인지 양식에 따라 자각하는 정도가 다르며 진로 발달의 시기와 대상에 따라 자각되는 장벽의 하위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진로장벽의 다원적인 분류 방법에 따라 김경수(2010)가 개발하고, 정환호(2016)가 검증한 연구를 바탕으로 진로장벽의 요인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대인관계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자기 명확성 부족, 흥미 부족, 직업정보 부족, 미래 불안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은 부모나 장래 배우자 또는 이성 친구 등이 나의 진로를 인정하지 않거나 반대 혹은 간섭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또는 너무 기대가 커서 겪는 어려움을 의미한다(김은영, 2001).

대인관계 어려움은 직무 적응 및 사회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언급하는데, 이는 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 또는 공동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를 말한다. 김경수(2010)의 연구에서는 고용이나 승진을 위해 스스로 소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경우를 대인관계와의 어려움이라고 하였다.

경제적 어려움이란 교육을 다 받기 위한 재정의 부족으로 진로 선택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경제적인 문제를 의미하는데, 이는 자신의 진로 선택이나 진로 계획 등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 경제적인 외적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을

뜻한다(정환호, 2016).

자기 명확성 부족은 진로 선택 시 고려하는 목표, 흥미, 가치나 대안 등 자신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한다. Swanson & Daniels(1995)는 자신감의 부족 및 인간관계와 사회화의 어려움을 진로결정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설명하고, 특정 직업에 대한 능력에 있어서 자신을 PR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특정 직업을 얻기 위한 준비 부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것과 만성적인 미결정, 빈약한 의사결정 등으로 우유부단하고 결단성이 부족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김은영, 2001).

흥미 부족은 자신의 진로 발달이나 직업에서 지루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진로에 불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하며(Swanson & Daniels, 1995), 이것은 자신이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거나 일에 대한 흥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김경수, 2010).

직업정보 부족은 진로에 대한 부적절한 준비를 의미하는데 직무에 필요한 기술이나 정보가 부족한 것을 말한다. 탁진국(1996)은 진로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의 부족,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한 부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준비성 부족이란 진로결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시작을 방해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의사결정 문제에서 결정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우유부단함을 포함한다고 하였다(최숙현, 2007).

미래 불안은 새로운 진로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걱정을 의미한다. 자신이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손은령, 2001; 김경자, 2016).

3) 진로장벽의 선행연구

진로장벽에 대한 초기 논의는 주로 여성의 경력 관련 갈등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단순히 여성의 사회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는 것을 넘어 인종, 선천적 개인의 성향, 혹은 연령에 의한 영향 등에 초점을 두어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강혜순, 2015).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장벽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년에 따른 차이에서는 저학년이 고학년에 비해 높다(고태용, 2008; 이순희, 2012), 학년이 높을수록 진로장벽이 높다(이연미, 2002; 이성식, 2007; 심정호, 2016), 학년에 차이가 없다(강혜순, 2015; 박기현, 2019)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성별과 학년에 대한 진로장벽 차이는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재학생들은 4년제 대학과 달리 2~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고 결정하기 때문에(정철영 외, 2002), 김종운, 박성실(2013)의 연구에서는 짧은 시간에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의 기능을 습득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고 4년제 대학생들보다 더 높은 진로장벽을 체감한다고 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이성식(2007)은 진로장벽 하위요인의 시점과 내용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진로장벽의 전체 점수가 아니라 하위요인별 영향을 독립적으로 고려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최숙현, 2007).

고태용(2008)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로장벽에 대한 과도한 인식은 진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한편으로 적절한 인식은 오히려 진로 발달에 현실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진로장벽은 하위요인에 따라 한 개인에게 치명적인 진로방해 요인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개인에게는 비교적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순희, 2012).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손은령, 2001; 유미정, 최애경, 2008)에서는 진로장벽을 높게 자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김민정(2016)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장벽을 높게 자각함으로써 진로준비행동에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반면, 김선중(2005)의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정보부족, 성격문제, 흥미부족 등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가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부모갈등, 신체열등, 나이문제 요인은 진로준비행동과 정적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단순히 변인들의 총점의 수준으로 이해하기보다 하위요인을 고려하였을 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안혜경(2008)과 이건우 외(2020)의 연구에서도 진로장벽의 특정 하위요인은 진로준비행동과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와는 상반된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진로장벽과 전공 만족도의 관계에 있어서 진로에 대한 장애요인이 높을수록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김상호, 정은성, 2016; 김은선 외, 2018).

선행연구를 통해 진로장벽은 하위요인과 대상, 범위에 따라 진로 발달에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때론 촉진할 수도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진로장벽과 진로 발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진로성숙도

1) 진로성숙도의 정의

진로성숙(Career Maturity)은 진로 결정을 앞두고 준비된 정도 또는 대처 행동 능력을 기술하고 평가하기 위해 시작된 개념이다. 진로성숙의 개념은 1940년대 청소년들의 진로행동에 관한 연구들에서 시작되어 Super(1955)가 처음으로 직업성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래로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Super(1955)는 진로 발달이 아동, 청소년, 성년기 동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적 발달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생애 계획, 직업성숙도, 자아개념의 직업, 자아개념의 전환, 진로 유형의 4가지 요소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직업 혹은 일에 대한 자아개념이 개인의 직업 선택 행동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반면, Crites(1961)는 진로성숙도를 같은 연령층의 학생들과 비교하였을 때 나타나는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고, 이는 일관되고 현실적인 진로 선택을 위한 능력이라고 하였다.

Gribbons & Lohness(1964)는 진로성숙을 진로선택과 진로계획에서의 준비도의 개념으로 보았으며, 진로성숙 수준은 개인의 내·외적 여건에 따라 교육과정, 직업태도, 진로정보, 흥미, 가치 등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김현옥, 1989). 또한 Hoyt(1977)는 개인이 자아와 직업에 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현명하게 통합할 수 있는 준비도라고 하였다.

김충기(1983)는 직업발달을 개인의 직업적 소양, 지식, 가치, 기술 등의 습득을 통해 궁극적으로 직업적성에 부합하는 행동이나 판단력을 낳는 과정을 직업발달로 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를 진로성숙으로 보았다.

국내 한국교육개발원(장석민 외, 1991)에서는 진로성숙도를 연속적인 발달개

념이며, 부분적으로는 각 발달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발달 과업의 수행 정도를 동일한 연령집단과 비교하여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라고 설명하였고, 이기학(1997)은 개인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할 때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 세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준비해가는 정도라고 하였다. 또한 개인의 진로 발달과정에서 성, 연령, 학력 혹은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적 요인들은 진로 탐색과 결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은경, 2001).

권은숙(2015)은 진로성숙에 대해 능력, 흥미, 적성, 신체적 조건, 가치관, 환경적 조건과 같은 자아의 이해 그리고 일과 직업에 대한 이해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 선택을 통합하고 조정해 나아가는 발달 단계의 연속이며 발달 단계마다 수행해야 할 과업이 있는데, 이 발달과업의 인지 수행 여부가 다음 단계로의 발달을 촉진 시키며 이해하는데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았다.

진로성숙도는 본인의 현실적인 진로 선택에 필요한 정서적 측면을 개인의 감정, 주관적 반응, 본인의 성향, 기질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개인의 태도를 알아보는 것은 그 사람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탐색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김민지,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를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할 때 자아에 대한 이해와 주변 환경을 인식하여 바른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한 합당한 태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진로성숙도의 구성요소

오늘날 진로성숙도는 진로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진로 발달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개념이 되었다(Herr & Cramer, 1988). 진로성숙도의 구성요소는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르며, 현재까지 구성요소 설정과 측정 방법의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초의 진로성숙도 측정은 Super(1969)의 진로 발달 검사(CDI: Career Development Inventory)로, 이는 진로와 관련하여 발달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이다. 하위요인은 진로계획, 직업탐색, 의사결정, 직업에 대한 지식,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한 지식으로 구분하였다(임언 외, 2001).

이후 Crites(1978)는 진로 결정 과정에서의 인지적 발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CMI: Career Maturity Inventory)의 태도척도는 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성향, 타협성으로, 능력척도는 직업정보, 목표설정, 미래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에도 진로성숙을 위한 측정 도구가 개발되었으나, Crites와 Super가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이기학(1997)이 Crites의 CMI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실제적으로 갖게 되는 태도 요인이 무엇인가 알아봄으로써, 진로성숙도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결정성, 확신성, 목적성, 준비성, 독립성으로 설정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진로성숙도 검사개발 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진로성숙도 검사를 바탕으로 태도척도(독립성, 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와 능력척도(자기이해, 합리적 의사결정, 직업지식), 행동척도(진로탐색 및 준비행동)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하여 개념화하였다(임언 외, 2001).

이종원(2014)은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진로동기,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진로성숙도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진로성숙도를 관여성, 호기심, 확신성, 협의성으로 구분하였고, 권은숙(2015)의 미용 전공 대학생의 가치관과 전공 만족도, 진로성숙도에 대한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을 계획성, 현실성, 결정성, 확고성, 자립성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를 이기학(1997)이 개발하고, 권은숙(2015)이 검증한 연구를 바탕으로 자립성, 확고성, 계획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자립성은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김은영(2001)은 자립성을 진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결정하는가를 측정하는 차원으로, 독립적인 진로 선택의 능력 정도로 보았다. 자립성 정도가 높은 사람은 진로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타인의 의견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주체성이 높은 사람이다(정희영, 2010).

확고성은 진로 선택에 대한 믿음과 소신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확신 정도를 말한다(양명숙, 박민경, 2008). 확고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마음의 준비되어, 미래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높은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권은숙, 2015).

이기학(1997)은 진로에 대한 사전이해와 관심, 참여 정도를 계획성이라고 하였다. 계획성은 현명한 진로 선택에 필요한 진로 정보수집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의 수준을 나타내는 차원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할 수 있으며, 그 기초 위에 자신의 진로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해보는 정도를 의미한다(권은숙, 2015). 김말선(2011)은 자신의 진로에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취합하고 능력을 많이 보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계획성 정도가 높다고 보았다.

3) 진로성숙도의 선행연구

진로성숙도는 개인의 진로 발달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진로성숙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Ginzberg et al.(1951)의 학생들의 직업 선택에 관한 연구를 통해 여성들의 진로 발달 연구가 시작되면서 성별의 차이에 따른 진로성숙도 비교연구가 시작되었다.

진로성숙도와 성별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여학생은 직업에 대한 가치가 직업태도의 지배적인 기초가 되는 반면, 남학생은 흥미가 직업태도의 주요 관심사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직업적으로 더 성숙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Herr & Enderlein, 1976; Leso & Neimeyer, 1991).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김현옥(1989)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성숙과 사회·심리적 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고등학생 모두에서 여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남학생보다 높다고 하였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현실적이고 직업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반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성숙 수준에는 성차가 없으며, 하위요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이기학, 1997).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의사결정과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목적성과 확신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지만, 준비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조아미, 2000). 이상희(2005)의 연구에서도 진로태도성숙의 전체 점수에서는 유의미한 성차가 없으며, 하위요인 중 목적성과 준비성은 여학생이 더 높았지만, 확신성과 독립성은 남학생이 더 높았다. 선행연구들을 비교한 결과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를 비교한 연구들이 일관된 연구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학년과 진로성숙도를 비교한 선행연구(이은경, 2001; 강재연, 2009)에서는 우

리나라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연령과 학년이 진로성숙과 관련이 없다는 결과도 있다(Powell & Luzzo, 1998; Patton & Creed, 2001).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는 대학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4년제 학생들이 전문대학생보다 높았고, 근로경험이 있는 학생이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높고, 전공선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화, 2016).

대학생들이 진로성숙도와 학과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강영숙, 이은정, 2006; 이민선 외, 2010)에서는 학과 만족도가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미용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치관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전공 학과에서 가치 있는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느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다고 하였다(정희영, 2010).

권은숙(2015)은 미용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통해 성격유형과 전공유형이 일치할수록 전공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본인 스스로 직업을 결정하고 타인의 의견보다는 자신이 희망하는 일을 선택하는 경향의 자립성 요인이 높았다.

미용 전공 대학생의 전공몰입과 진로성숙도의 관련성을 알아본 방효진(2019)은 학생들의 미용 전공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가 높아질수록 진로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상승하였고, 전공에 대한 지식 및 학습 욕구가 높아질수록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다고 하였다.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밝힌 이기학, 이학주(2000)의 연구에서는 진로성숙의 하위요인 중 결정성과 확신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

적 확신감은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진로성숙도 요인 중 확신성은 진로결정효능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는 진로선택에 대한 나의 확신의 정도가 높다는 의미로써, 미래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확신한다는 의미다(최은주, 김영란, 2012).

이상희(2005)의 연구에서도 진로태도성숙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이 진로성숙도 또한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정희영, 2010; 홍영옥, 2011).

진로성숙도가 높은 대학생일수록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학생들의 진로성숙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에게 맞는 직업 준비를 잘할 수 있으며, 직업적 성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고경필, 심미영, 2014).

이처럼 진로성숙도는 다양한 변인인 나이, 성별, 학과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직업관련 경험들과 관련이 있으며, 개인의 발달 단계에서 상대적인 진로 발달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정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Self-Efficacy)은 개인의 진로 결정과 관련된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이나 신념의 정도를 의미한다(Hackett & Betz, 198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이론은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 및 직업 분야에 적용한 것이다. 학자들은 자기효능감이 성취 행동과 진로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하에 진로 발달모델에 자기효능감을 중요한 변인으로 포함하였으며, 이에 따라 Bandura(1986)의 자기효능감 이론이 진로결정 영역에 적용되었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에게 주어진 과업이나 목표를 위해 필요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이는 청년기까지 어떠한 환경에서 노출되었는지에 따라 구성되고 수행성취, 대리경험, 정서적 각성, 사회적 설득이나 격려 통해 획득된다고 하였다(Bandura, 1999). 자기효능감은 행동을 시작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할 것인가, 역경에 직면하였을 때 어느 정도 행동을 지속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조명실, 2007).

Hackett & Betz(1981)는 자기효능감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은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 발달 분야에 응용하여 Taylor & Betz(1983)가 개인이 자신의 진로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신념이라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이 인간 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설명하고 예언할 때 유용하다는 사실에 주목한 Taylor & Betz는 처음으로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와 직업 분야에 제시하였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DMSE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를 개발하였고,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조명실, 2007).

이은경(2001)은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개인이 진로 결정이라는 과업을 시작하고 지속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대학생의 진로결정 유형별 특성과 진로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효과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자기평가와 의사결정, 취업, 진로 적응 과정에 도움이 될만한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고(최은영, 2011), 목표한 것이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고 이끌어가게 하는 매개체라고 설명하고 있다(정진선, 2001).

이현주(2008)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신념 혹은 유능감이라 하였으며, 전공이나 직업의 선택과 같은 진로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관한 자각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자기효능감의 행동 예언력을 기반으로 진로 발달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준비·계획·실행·평가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의 자신감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검사도구는 Taylor & Betz(1983)가 개발한 CDMSES와 Betz et al.(1996)이 개정한 단축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DMSES-S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hort Form)가 활용되고 있다(이은경, 2001).

처음 만들어진 CDMSES는 전체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 결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수립, 미래계획, 문제해결로 다섯 개 하위영역을 포함하고 있다(이상민 외, 2007). 그러나 이 척도는 응답에 있어 긴 시간을 요구하는 많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단점 때문에, 진로관련 연구자들은 총 25문항의 단축형 척도인 CDMSES-SF를 사용하고 있다.

진로결정 단계에 따라 진로결정 과업을 제시하고 자신의 효능감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김선중, 2005).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로 구분되어있다(조명실, 2007).

국내에서는 이기학, 이학주(2000)가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CDMSES-SF를 번안하여 연구하였으며, 하위요인은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택, 문제해결, 미래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Betz et al.(1996), 이은경(2001), 심정호(2016)의 연구를 바탕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을 계획수립, 자기평가, 목표선택, 정보수집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이은경(2001)은 CDMSES-SF를 바탕으로 대학생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까지 이해하기 쉽게 타당한 문항으로 수정하고 요인을 분석하여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4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였다. 이 척도를 활용한 문숙정(2015)은 외식계열 전공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파악하기 위해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 목표선택으로 나누었으며, 무용 전공 대학생의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을 연구한 심정호(2016)는 하위요인을 자기평가, 정보수집, 목표선택, 계획수립, 문제해결로 분류하였다.

계획수립은 본인 스스로가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는 진로목표를 위한 논리적 단계로 미래의 계획을 의미한다(박지윤, 2017). 이는 자신의 전공이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처음 선택한 진로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다른 대안까지 생각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뜻한다(손경환, 2021).

자기평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가치, 욕구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직업을 선택, 평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김영혜, 2013). 오나라(2018)는 자기평가에 대하여 본인이 관심이 있고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알맞은 직업의 유형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확히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목표선택은 본인 스스로 진로 목표를 결정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말하며 자신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용주, 2021). 즉,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여 합리적으로 진로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나용주, 윤병섭, 2017).

정보수집은 관심이 있는 직업을 찾아내고, 그 직업의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이종찬, 2013). 정보수집에는 본인에 대한 정보와 관심 있는 직업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신에 관한 정보는 능력이나 적성, 성격, 흥미 등이 있으며 직업에 관한 정보는 현황, 전망, 취업 정보, 필수요건, 직업환경, 승진경로 등이 있다(김기홍, 2019).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선행연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행동을 예측하게 하는 강력한 변인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행동이나 목표설정 및 결과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수행에서는 차이가 나타난다(박현미, 장석진, 2013; 주영주 외, 2011; 주인숙, 2017).

Bandura(1999)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직업 선택과 계획을 돕는 탐색적 활동들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진로 의사결정에 있어 자각된 효능감이 낮을수록 진로 활동에 필요한 탐색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etz et al., 199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Holland et al., 1980; Luzzo, 1993)에 따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상담에 긍정적인 태도가 높고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적절한 변인이라고 판단된다.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차이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다(김선중, 2005; 조명실, 2007), 남학생이 높다(문숙정, 2015), 성별에는 차이가 없다(이기학, 이학주, 2000)는 연구 결과를 통해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일관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은경(2001)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높아졌으며, 대학 이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 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고태용, 2008; 송현심, 홍혜영, 2010; 김연중, 2011; 양은주, 2017) 학년이 올라가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증가함을 밝혔는데 학년의 변화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 발달에 변화를 확인하였다.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대학교의 주위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김계현, 하혜숙, 2000), 전공 만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서 대학생의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현재, 2014).

송윤정, 조규판(2015)의 연구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전공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고, 대학생들이 전공 교과나 학과에 대한 만족이 충족될 때 진로에 대한 준비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대학생들이 전공에 대해 만족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능력의 신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류인평 외, 2019).

이상희(2005)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장벽의 다양한 요인들에 대하여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진로장벽 요인 중 자기 명확성 부족과 직업정보 부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높은 영향으로 미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신에 대해 확실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 직업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성격적인 특성이 진로선택과 적응에 대한 자신감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진로를 결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성숙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인들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이은경, 2001).

개인이 직업탐색 과정에서 발달 정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에 대한 성숙 정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조명실(2007)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의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김선중(2005)은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진로준비행동 낮은 동시에 진로장벽이 높은 학생들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가장 낮게 나타남을 밝혔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 변인이 진로준비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밝힌 진현정(2011)의 연구에서도 학생

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제를 잘 수행하고, 자기효능감을 향상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미용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서란숙(2019)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현장실습 참여로 인한 취업 정보탐색 활동은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과 함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까지 높아졌다고 하였다.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적극적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고, 대학생들이 자각하는 진로장벽을 낮추고 진로준비행동을 효율적으로 도울 방법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이미지 외, 2016).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나 관심 분야 및 원하는 생활방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는 경우 자신의 기준에 부합한 직업을 결정하고, 원하는 직업 선택을 위한 준비를 한다고 볼 수 있다(서예지, 2016).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매개변인으로써 진로 발달과 관련된 요인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진로에 대한 자기효능감에 따라 장벽에 대한 자각 수준과 준비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진로준비행동

1) 진로준비행동의 정의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은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자신과 주변환경에 대한 탐색 활동이며(Blustein, 1997),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행동과 진로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목표를 향해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김봉환, 김계현, 1997).

최근 진로 및 취업지도 분야에 있어서는 인지나 태도 차원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로와 관련된 실천적인 행동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박완성, 2002).

국내에서 진로준비행동을 최초로 개념화한 김봉환(1997)은 인지와 태도적인 차원이 완성된다고 해서 반드시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진로준비행동의 개념을 진로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 결정을 위해 해야 하는 행동과 진로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그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행동이라고 언급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은 취업준비행동, 진로탐색행동, 직업탐색행동, 취업준비전략 등 유사한 용어들이 있다.

취업준비행동은 현실적으로 취업 문제를 직면하였을 때 이력서와 취업 시험에 필요한 조건과 같이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진로준비행동은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진로의 개념이다(유미정, 최애경, 2008). 즉, 진로준비행동은 직업과 직무를 결정하기 이전부터 이루어지는 실천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취업 준비에 국한되지 않으며 진로 결정과 준비과정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서희정, 윤명희, 2011).

강재연(2009)은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진로탐색을 직업,

직무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라 하였고, 자신과 직업 세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활동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진로준비행동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진로준비행동은 진로를 결정한 후에 자신의 결정을 실행하거나 몰입하는 행동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진로를 결정하거나 진로 대안을 줄이려는 행동까지 포함하고 있다(김봉환, 1997).

직업탐색행동은 개인이 여러 가지 직업 사이에서 대안들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하나의 일련 과정으로서, 취업을 원하는 개인과 기업 사이에서의 과정을 말한다(진현정, 2011).

이제경, 김동일(2004)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학 졸업 후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직업탐색과 함께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으로 보았다.

대학생들이 정확한 정보가 없이 진로를 결정하게 될 경우, 자신의 의견보다 부모나 타인의 의견에 의존하거나 외적인 요인만을 추구하여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로는 단번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에 맞게 어떻게 노력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신중한 과정을 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임미지, 박은준, 2017).

서봉언 외(2015)는 진로준비행동이란 갑자기 어떤 시기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고 경험한 것으로부터 연계된 것이 체계화되고 축적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준비와 실천적인 행동은 취업에 있어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인지나 태도적인 차원에서 더 나아가 합리적인 진로의 결정을 위해 자료수집, 학습 및 능력 개발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의 행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진로준비행동의 유형

진로준비행동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올바른 진로 준비에 있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반영한 김봉환(1997)의 진로준비행동 검사가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봉환(1997)은 진로준비행동을 개인이 결정된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행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올바른 진로 결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 정보수집 활동, 도구구비 활동, 실천적 노력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연구대상이 사범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서진숙(1998)은 학년과 성별, 전공을 고루 고려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행동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추출된 하위요인으로는 인쇄물을 통한 정보수집행동, 구직행동, 시험준비행동, 사람을 통한 정보수집행동, 외국어공부행동으로 구분하였다.

박완성(2002)은 진로준비행동을 기존의 진로준비행동이나 진로탐색행동 관련 도구들을 분석하고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게 적용 가능한 검사도구를 개발하여 진로탐색행동, 정보수집행동, 직업체험활동, 취업준비활동의 4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조진화(2017)는 무용전공 대학생을 위한 진로준비행동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심층분석을 위해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을 실시하였고, 진로준비행동을 정보수집활동, 도구구비활동, 실천적 노력활동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김봉환(1997), 박완성(2002), 조진화(2017)의 연구를 바탕으로 진로준비행동 요인을 정보수집 활동, 실천적 노력 행동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정보수집활동은 자신의 적성, 흥미, 능력, 성격 등과 같이 자신에 관한 정보는 물론이고 직업현황, 취직 방법, 전망, 필수조건, 승진 방법, 업무 현장과 같

은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태용, 2008).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진로에 매우 중요한 준비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조진화, 2018).

도구구비활동은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을 말하며,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나 교재 등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취득하는 활동까지 포함된다(김봉환, 1997). 자기의 진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여러 도구를 구비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작업은 필수적으로 중요한 행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박완성, 2002).

실천적 노력 활동은 설정된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말하며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종사자와 만남을 진행하거나 사회진출을 위한 면접에 대비한 사전훈련과 같은 준비 행동을 의미한다(강혜순, 2015). 이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도구와의 상호과정이며, 필요한 장비나 도구 구매 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진로 준비를 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태용, 2008; 김은선 외, 2018).

3) 진로준비행동의 선행연구

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개인의 인식이나 태도로부터 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실천적인 준비 행동을 자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진로 준비과정 중 하나이다(김종운, 박성실, 2013).

국내에서는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한 김봉환(1997)의 진로준비행동 척도가 개발된 이후에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등 변인들 간의 영향 관계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선행연구(최동선, 2003; 진현정, 2011; 노윤신, 2016; 조진화, 2018)에 따르면, 국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하였다.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는 동기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관심 분야에서의 고용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거나, 금전적인 보상이나 최종 기한, 타인으로부터의 지시와 같은 외부에 의존하는 성향이 클수록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준비행동을 수행하려 한다. 반면, 쉽게 불안감을 느끼거나 자신이 무력하다고 생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동선, 2003).

이는 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지와 의도성이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로상담이나 교육 분야에서 행동적인 요소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김은주, 2008; 유수복, 2013),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다(강희순, 2010), 성별의 차이가 없다(박완성, 2002; 이현주, 2008; 조진화, 2018)는 연구 결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진로준비행동을 잘 설명해 주는 변인의 하나는 학년인데, 4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진로준비행동이 높다는 연구 결과(김봉환, 1997; 김선중, 2005; 손은령,

손진희, 2005; 진현정, 2011)를 통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양한 정보수집과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며, 고학년이 되어서야 급박하게 진로준비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손은령, 손진희, 2005).

대학 소재지는 대학생의 취업 성과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연구되었는데 류장수(2005)의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생은 구직정보를 획득하는 경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비수도권의 대학생이 수도권 대학의 대학생들보다 진로개발 활동에 더욱 적극적인 것을 확인하였다(안수영, 2008). 또한, 대학생의 진로탐색 동기의 구조적 관계를 연구한 김태환(2019)의 연구에서는 비수도권의 대학생이 직업에 대한 탐색 활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의 차이에서는 4년제 대학생이 2년제 대학생보다 진로준비행동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하였다. 신지영 외(2012)의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관하여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이며,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정보 부족이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유수복(2013)의 대학생들의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에서도 대학생이 자각한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진로장벽 인식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은 낮았으며 진로자기효능감 또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래의 직업에 대한 불안감이 높을수록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나 단기 취업으로 직업을 미리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유형은 경험보다는 일하는 업무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수집하고 탐색한다고 보고되었다(박종옥, 2016).

전공 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 사이에서는 다양한 견해의 선행연구들을 볼 수 있다. 전공에 대한 흥미를 갖고 학습에 충실한 대학생이 진로준비행동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정진희, 2012; 한예정, 2014; 송운정, 조규판, 2015)가 있는 반면에, 학생들의 전공 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매개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영현 외, 2013; 정민주, 박인혜, 2015).

김영현 외(2013)는 경호전공과 무도전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공 만족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양은주(2017)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하였는데, 학생들의 전공 만족이 높을수록 진로 탐색과 계획이 확고해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은아 외(2020)의 연구에서는 학과 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정적인 영향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교육내용이나 취업에 따른 직업의 만족이 직무 연관성이나 자긍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연결되고 진로준비행동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진로준비행동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 역할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4) 미용 전공의 진로 및 현황

현대인의 외모에 대한 관심은 미용 산업이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러한 미용 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전문 인력의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미용 산업 인력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미용 관련 교육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2000년 이후부터는 학원 중심에서 학교 중심으로 꾸준히 변화하여 연간 배출되는 미용 인력 중 약 40% 이상은 전문대학 및 대학교 졸업생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교육통계연보, 2018).

미용 전공 대학생들은 오랜 시간을 거쳐 자신이 할 전공에 대해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물론 부모의 영향, 환경적 요인, 개인적 선호, 선천적 능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미용이 가진 전문성으로 인해 이미 진로에 관한 결정수준의 경험이 존재한다(서예지, 2016).

그러나 대학 입학 후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진로 의식과 진로 성숙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민지(2021)는 진로를 발달해가는 과정은 자신의 자아개념을 발달시키고 보완해가는 경험의 연속으로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환경적 변화에 따라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고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미용을 전공하여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용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공연분장사, 네일아티스트, 이미지컨설턴트, 피부 관리사, 체형관리사, 코디네이터, 이·미용학원 강사, 뷰티 컨설턴트, 스파 매니저, 화장품 브랜드 매니저 등으로 제시(한국고용정보원, 2021)되고 있지만, 이러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진로 태도 발달과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진로에 대한 문제 고찰이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이들을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산업 인프라도 한계가 있다고 한다(조현정, 장창곡, 2020).

교육통계서비스(검색일자 : 2021. 02. 09)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고등교

육기관 전체 취업률은 67.7%를 나타냈는데,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83.3%, 공학계열 71.7%, 예체능계열, 자연계열, 사회계열이 64.2%, 교육계열이 64.1%, 인문계열 57.1% 순으로, 미용 관련 전공을 예체능 계열로 분류하고 있다. 교육계열은 임용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졸업 후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인문계열 다음으로 예체능계열, 자연계열, 사회계열의 순으로 낮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미용 전공 분야 직종은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일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과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고객의 불만 제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스트레스 감내성이 필요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와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전공자들은 갈등을 겪거나 다른 전공으로 전향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최지아, 2015). 그러나 미용 전공 대학생들은 오랜 시간 실기 능력 향상을 위한 연습과 훈련을 하였으므로 취업률이 낮다고 해서 전공을 바꾸거나 새로운 전공을 습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며, 취업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울감이나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김의형, 2021).

이렇게 매년 배출되는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연구에 있어 학생들 개인의 속성을 탐색하는 연구는 제한적이었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전공 특성상 발휘되는 학생들의 진로 성향과 현재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 교육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진단적 기초자료의 제공 역할을 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미용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미용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한다.

연구문제 2. 미용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인구통계적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미용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검증된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4. 미용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5. 미용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장벽 및 진로성숙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매개효과분석을 통하여 알아본다.

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미용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장벽,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지법을 이용하였다.

본 조사는 2021년 2월 7일부터~2월 27일까지 서울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에 2년제, 4년제 대학교에서 미용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650명에게 오프라인 및 온라인 설문지를 배부하여 645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자 11명을 제외하고 63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미용 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 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하였다.

셋째, 미용 전공 대학생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라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차이검증을 위해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미용 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각 항목변수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검증된 각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을 하였다.

다섯째, 미용 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 및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 및 진로성숙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4. 측정도구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를 위해 미용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표 1>은 설문지의 구성과 문항 수를 정리한 것이다.

설문지 내용은 크게 5가지로 구성하였으며, 미용 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83문항을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하였고, 일반적 특징 11문항을 선다형 문항으로 하여 총 9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진로장벽

진로장벽은 김경수(2010), 정환호(2016)의 연구를 바탕으로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대인관계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자기 명확성 부족, 흥미 부족, 직업정보 부족, 미래 불안 7가지 요인으로 구분하고 5점 Likert 척도를 적용하여 총 32 문항을 최종 사용하였다.

2)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는 이기학(1997), 권은숙(2015)이 검증한 연구를 바탕으로 자립성, 확고성, 계획성의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고 5점 Likert 척도를 적용하여 총 15 문항을 최종 사용하였다.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Taylor & Betz(1983)가 개발하고, 이은경(2001), 심정호(2016)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계획수립, 자기평가, 목표선택, 정보수집 4가지 요인으로 구분하고 5점 Likert 척도를 적용하여 총 23문항을 최종 사용하였다.

4)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1997), 박완성(2002), 조진화(2017)의 연구를 참고하여 정보수집 행동, 실천적 노력 행동 2가지 요인으로 구분하고 5점 Likert 척도를 적용하여 총 13문항을 최종 사용하였다.

5)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대한 측정 도구는 학년, 대학 소재지, 재학 중인 학교, 전공 분야, 전공 만족도 등에 관한 11개 문항으로 최종 구성하였다.

〈표 1〉 설문지의 구성

측정변인	하위요인	측정방법	출처	문항 수
진로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 대인관계 어려움 • 경제적 어려움 • 자기 명확성 부족 • 흥미 부족 • 직업정보 부족 • 미래 불안 	5점 Likert 척도	김경수(2010) 정환호(2016)	32
진로 성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성 • 확고성 • 계획성 	5점 Likert 척도	이기학(1997) 권은숙(2015)	15
진로결정 자아효능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 • 자기평가 • 목표선택 • 정보수집 	5점 Likert 척도	Taylor & Betz(1983) 이은경(2001) 심정호(2016)	23
진로준비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수집 행동 • 실천적 노력 행동 	5점 Likert 척도	김봉환(1997) 박완성(2002) 조진화(2017)	13
일반적 특성		선다형	연구자	11
총 문항 수				94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와 퍼센트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학년, 대학 소재지, 재학 중인 학교, 전공 분야, 전공 만족도, 희망 직업 관련 자격증 취득 여부, 취득한 국가자격증, 졸업 후 희망 진로 분야, 희망 직업 분야 경험 유·무, 취업 준비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 취업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을 알아보았다.

총 634명 중 학년별로 살펴보면 2학년이 33.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학년 24.4%, 3학년 22.7%, 4학년 19.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 소재지를 살펴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이 69.6%로 가장 많았으며,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 30.4% 순이었다. 학교의 유형으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이 55.5%로 많았으며, 2년제 대학이 44.5% 순이었다. 전공 분야별로는 헤어 전공이 27.0%로 가장 많았으며, 메이크업 전공 26.3%, 피부 전공 24.4%, 네일 전공 22.3%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도가 중(中)이라는 응답이 50.3%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상(上)이라는 응답은 42.1%, 하(下)라는 응답은 7.6% 순으로 나타났다.

미용 관련 국가자격증 취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취득했다(예)라는 응답이 73.0%로 가장 많았으며, 아직 취득하지 못했다(아니요)라는 응답이 2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 관련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취득한 자격증의 종류를 확인한 결과 미용사(일반)이 30.0%로 가장 많았으며, 미용사(메이크업) 28.5%, 미용사(피부) 22.5%, 미용사(네일) 19.0% 순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 희망 분야를 살펴보면 실무 취업(헤어살롱, 메

이크업 살롱, 피부관리샵, 네일샵)이 55.5%로 가장 많았으며, 아직 정하지 않음(미정) 15.6%, 편집학 또는 대학원, 유학 9.8%, 창업(프리랜서) 및 사무직(전공 관련 직종 외)이 각각 6.6%, 제품 및 실기 교육강사 5.9% 순으로 확인되었다.

희망하는 직업 분야에 대한 실무경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으며,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은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을 조사한 결과, 미용분야 경력이 34.2%로 가장 많았으며, 자격증 취득 24.4%, 전공실기 교육 21.0%, 인성교육 11.8%, 취업 정보 수집 5.8%, 성적관리 2.7% 순으로 조사되었다.

취업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을 조사한 결과 연봉이 31.2%로 가장 많았으며, 작업환경 28.9%, 장래전망 16.9%, 복리후생 12.3%, 기술 10.7%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2〉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N=634

구분	항목	빈도	퍼센트
학년	1학년	155	24.4
	2학년	214	33.8
	3학년	144	22.7
	4학년	121	19.1
대학소재지	수도권	441	69.6
	비수도권	193	30.4
학교 유형	2년제	282	44.5
	4년제	352	55.5
전공분야	헤어	171	27.0
	메이크업	167	26.3
	네일	141	22.3
	피부	155	24.4
전공 만족도	상	267	42.1
	중	319	50.3
	하	48	7.6
희망직업 관련 자격증 취득여부	예	463	73.0
	아니요	171	27.0
취득한 국가자격증	미용사(일반)	139	30.0
	미용사(피부)	104	22.5
	미용사(네일)	88	19.0
	미용사(메이크업)	132	28.5
졸업 후 희망진로 유형	실무 취업	352	55.5
	창업	42	6.6
	편입학 또는 대학원, 유학	62	9.8
	제품 및 실기 교육강사	37	5.9
	사무직	42	6.6
	미정	99	15.6
희망직업분야 직업경험유무	있음	311	49.1
	없음	323	50.9
취업 준비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자격증 취득	155	24.4
	전공실기 교육	133	21.0
	인성교육	75	11.8
	성적관리	17	2.7
	취업정보 수집	37	5.9
	미용분야 경력	217	34.2
취업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연봉	198	31.2
	장래전망	107	16.9
	복리후생	78	12.3
	기술	68	10.7
	작업환경	183	28.9
합 계		634	100.0

2.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요인분석

1) 진로장벽

진로장벽에 대한 연구에서는 32개의 문항 중 3개의 문항이 삭제되었고 최종 29개 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요인 1(13.057%)은 나의 진로는 부모님의 반대나 간섭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부모님과 집안 기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부모님이 반대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직업으로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나의 진로 선택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된다, 인간관계 내의 중요한 사람들이 내가 선택하려는 진로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10.485%)는 나는 앞으로 직장생활 할 때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나는 일과 관련된 어려움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더 큰 것 같다, 나는 인간관계가 좁은 편이기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혼자서 일하는 것이 편하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인관계 어려움’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9.905%)은 경제적 문제로 인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진로의 성취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경제적 문제 때문이다, 앞으로의 진로 선택은 경제적 문제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9.270%)는 나는 좋지 않은 성적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나는 취업이 잘 안 될 것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필요한 능력이 부족하다, 나는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기 명확성 부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9.100%)는 내가 선택한(할) 진로가 그다지 재미있는 것 같지 않다, 졸업 후 내가 선택한 진로에 흥미가 점점 없어질 것이다, 나는 흥미있는 일이나 선택하고 싶은 직업이 없다, 내가 선택한 진로에 대한 흥미는 시간이 흐르면 바뀔 것이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흥미 부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6(8.755%)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진로에 대한 자료를 얻기 어렵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내가 원하는 진로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 모르겠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직업정보 부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7(8.687%)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때문에 나의 진로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취업에 영향을 준다, 시대가 빠르게 변해서 나의 진로에 대한 계획에 혼란을 주고 있다, 나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막연한 불안함이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미래 불안'으로 명명하였다.

이 7개의 요인적재 값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진로장벽 질문지의 요인분석

item	factor							공통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대인관계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자기 명확성 부족	흥미 부족	직업정보 부족	미래 불안	
나의 진로는 부모님의 반대나 간섭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812	.024	.240	.097	.152	.094	.000	.760
부모님 집안 기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780	.032	.321	.082	.226	.090	-.046	.781
부모님이 반대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직업으로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762	.093	.103	-.042	.173	.159	.165	.684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나의 진로선택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된다.	.746	.024	.236	.103	.222	.105	.080	.690
인근친척 내의 중요한 사람들이 내가 선택하려는 진로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675	.269	.134	.122	.205	-.010	.199	.642
나는 앞으로 직장생활할 때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136	.806	.050	.207	.096	.148	.098	.754
나는 일과 관련된 어려움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더 큰 것 같다.	.049	.804	.151	.057	.025	.097	.170	.714
나는 인건비가 좁은 편이기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132	.783	.124	.165	.202	.153	.121	.752
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혼자서 일하는 것이 편하다.	.034	.742	.242	.168	.177	.119	.054	.687
경제적 문제로 인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297	.178	.772	.155	.117	-.029	.087	.762
내가 원하는 진로의 성취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다.	.128	.088	.754	.132	-.025	.113	.134	.642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경제적 문제 때문이다.	.248	.151	.751	.119	.103	.036	.175	.705
앞으로의 진로 선택은 경제적 문제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227	.163	.705	.032	.079	.137	.246	.662
나는 좋지 않은 성적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082	.119	.202	.706	.123	.181	.013	.608
나는 취업이 잘 안 될 것이다.	-.034	.164	.129	.681	.263	.088	.113	.598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필요한 능력이 부족하다.	-.036	.073	.209	.660	.200	.208	.009	.570
나는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383	.150	-.046	.581	.031	.151	.317	.634
나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	.361	.306	-.103	.581	-.051	.069	.161	.606

내가 결정한(할) 진로가 그다지 재미있을 것 같지 않다	.329	.143	.058	.164	.755	.032	.123	.745
졸업 후 내가 선택한 진로에 흥미가 점점 없어질 것이다	.317	.081	.035	.127	.740	.183	.171	.735
나는 흥미있는 일이나 선택하고 싶은 작업이 없다	.184	.170	.055	.218	.655	.152	-.085	.573
내가 선택한 진로에 대한 흥미는 시간이 흐르면 바뀔 것이다	.156	.113	.107	.082	.639	.064	.348	.589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진로에 대한 자료를 얻기 어렵다	.088	.166	.060	.152	.106	.840	.262	.848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149	.149	.143	.218	.116	.814	.223	.837
내가 원하는 진로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 모르겠다	.170	.203	.046	.262	.169	.785	.078	.792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때문에 나의 진로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	.107	.128	.207	.107	.189	.047	.796	.754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취업에 영향을 준다	.036	.092	.239	.157	-.013	.206	.719	.651
시대가 빠르게 변해서 나의 진로에 대한 계획에 혼란을 주고 있다	.207	.223	.122	-.029	.183	.292	.651	.650
나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막연한 불안함이 있다	.023	.120	.166	.374	.353	.308	.510	.662
고유값	3.787	3.041	2.873	2.688	2.639	2.539	2.519	
분산(%)	13.057	10.485	9.905	9.270	9.100	8.755	8.687	
누적(%)	13.057	23.543	33.448	42.718	51.818	60.573	69.260	
신뢰도(Cronbach's α)	.890	.866	.850	.768	.810	.894	.813	
전체신뢰도				.930				
KMO와 Bartlett 검정				KMO=.901, $\chi^2=10,653.367$				p<.000

2)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는 15개의 문항 중 4개의 문항은 삭제되었고 최종 11개 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진로성숙도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요인 1(26.712%)은 타인의 의견보다 자신이 희망하는 일을 선택해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나는 내가 정한 소신대로 직업을 선택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립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24.247%)는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다, 내가 선택한 직업 분야에서 성공할 확고한 자신감이 있다,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을 확신이 있다,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확고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16.889%)은 학교를 다니는 지금도 앞으로의 직장생활에 대해 상상해 본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워 준비한다, 내가 계획한 진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계획성’으로 명명하였다.

이 3개의 요인적재 값이 $\pm .60$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6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진로성숙도 요인분석

item	factor			공통성
	자립성	확고성	계획성	
타인의 의견보다 자신이 희망하는 일을 선택해야 한다.	.816	.206	.159	.733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806	.118	.084	.670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806	.155	.236	.729
나는 내가 정한 소신대로 직업을 선택한다.	.783	.248	.097	.683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다.	.153	.820	.209	.739
내가 선택한 직업 분야에서 성공할 확고한 자신감이 있다.	.177	.800	.201	.712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을 확신이 있다.	.175	.757	.190	.640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423	.618	.206	.603
지금도 미래의 직장생활에 대해 상상해 본다.	.284	.066	.778	.690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워 준비한다.	.111	.295	.744	.653
내가 계획한 진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073	.408	.663	.611
고유값	2.938	2.667	1.858	
분산(%)	26.712	24.247	16.889	
누적(%)	26.712	50.959	67.847	
신뢰도(Cronbach's α)	.859	.832	.699	
전체신뢰도		.875		
KMO와 Bartlett 검정	KMO=.881, $\chi^2=3,079.911$			$p<.000$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공통된 23개 문항 중 8개 문항이 삭제되었고 최종 15개 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요인 1(22.478%)은 나는 취업 면접에 필요한 절차들을 잘할 수 있다. 나는 나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직종과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전공이나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들을 힘든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나는 선택한 전공을 이수하는데 어떤 교과과정(교육과정)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나는 만약, 내가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는데 학업상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떤 방법들을 취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나는 나의 이력서를 멋지게 쓸 수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계획수립’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16.410%)는 나는 나에게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나는 나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나는 직업 선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생활방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기평가’로 명명하였다.

요인 3(14.274%)은 나는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 목록들 중에서 내가 희망하는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나는 관심있는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여러 가지 진로 목록들 중 내가 원하는 진로 목표를 선택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목표선택’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11.610%)는 나는 향후, 10년간의 직업 고용 경향을 알 수 있다,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직업의 평균 수입과 연봉을 알아볼 수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보수집’으로 명명하였다.

이 4개의 요인적재 값이 $\pm.50$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6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분석

item	factor				공통성
	계획 수립	자기 평가	목표 선택	정보 수집	
나는 취업 면접에 필요한 절차들을 잘할 수 있다.	.724	.284	.150	.285	.709
나는 나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직종과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724	.188	.219	.242	.666
나는 내가 선택한 전공이나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들을 힘든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698	.150	.240	.072	.573
나는 선택한 전공을 이수하는데 어떤 교과과정(교육과정)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	.672	.074	.353	.138	.601
나는 만약, 내가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는데 학업상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떤 방법들을 취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660	.307	.148	.020	.553
나는 나의 이력서를 멋지게 작성할 수 있다.	.659	.342	-.089	.312	.656
나는 나에게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141	.728	.319	.181	.684
나는 나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177	.709	.004	.261	.602
나는 직업선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290	.683	.231	.007	.604
나는 내가 원하는 생활방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281	.664	.228	-.048	.574
나는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 목록들 중에서 내가 희망하는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087	.188	.770	.237	.692
나는 관심있는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329	.215	.741	-.110	.715
나는 여러 가지 진로 목록들 중 내가 원하는 진로 목표를 선택할 수 있다.	.289	.232	.686	.252	.672
나는 향후, 10년간의 직업 고용 경향을 알 수 있다.	.152	.175	.105	.799	.702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직업의 평균 수입과 연봉을 알아볼 수 있다.	.276	.039	.166	.779	.713
고유값	3.372	2.461	2.141	1.741	
분산(%)	22.478	16.410	14.274	11.610	
누적(%)	22.478	38.888	53.162	64.772	
신뢰도(Cronbach's α)	.859	.768	.760	.670	
전체신뢰도					.896
KMO와 Bartlett 검정					KMO=.905, $\chi^2=3,950.831$ $p<.000$

4)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13개의 문항 중 3개의 문항이 삭제되었고 10개 문항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표 6>과 같다.

요인 1(32.959%)은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았거나 혹은 그 같은 방문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내가 진로와 관련된 교육기관이나 혹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알아보거나 안내 책자를 읽어보았다,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교수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진로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 또는 그 밖의 상담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관심있는 직업 분야와 관련된 책이나 팸플릿(소책자) 등을 구입해본 적이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보수집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29.769%)는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교재, 참고서적 또는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하였다,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교재, 참고서적 혹은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가지고 진로준비를 하고 있다,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취업 혹은 진학)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나는 내가 깊이 관심이 있는 업종 혹은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취업 방법, 보수, 승진제도, 전망)를 수집하였거나 수집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천적 노력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이 2개의 요인적재 값이 $\pm .50$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8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진로준비행동 요인분석

item	factor		공통성
	정보수집 행동	실천적 노력행동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았거나 혹은 그 같은 방문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742	.206	.593
나는 지난 몇 개월동안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723	.244	.583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진로와 관련된 교육기관이나 혹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 책자나 팸플릿(소책자) 등을 알아보거나 안내 책자를 읽어보았다.	.707	.381	.645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교수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707	.074	.506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진로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 또는 그 밖의 상담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680	.261	.531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관심 있는 직업분야와 관련된 책이나 팸플릿(소책자) 등을 구입해본 적이 있다.	.637	.483	.638
나는 최근 관심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교재, 참고서적 또는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하였다.	.101	.867	.762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 교재, 참고서적 혹은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가지고 진로준비를 하고 있다.	.219	.857	.782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취업 혹은 진학)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397	.686	.629
나는 내가 깊이 관심 있는 업종 혹은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취업 방법, 보수, 승진제도, 전망)를 수집하였거나 수집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371	.683	.605
고유값	3.296	2.977	
분산(%)	32.959	29.769	
누적(%)	32.959	62.728	
신뢰도(Cronbach's α)	.848	0.848	
전체신뢰도	.890		
KMO와 Bartlett 검정	KMO=.857, $\chi^2=3,313.483$		
	$p < .000$		

3.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진로장벽, 진로 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분석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장벽 특성 차이분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장벽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이는 학년별 구분의 경우에 진로장벽 중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F=8.505, p<.001$), 경제적 어려움($F=6.527, p<.001$), 자기 명확성 부족($F=4.431, p<.01$), 미래 불안($F=2.899, p<.05$)은 집단별로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대인관계 어려움, 흥미 부족, 직업정보 부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 전공 대학생들은 졸업과 취업을 앞둔 4학년이 다른 학년들보다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크게 자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9년 교육통계서비스(검색일자 : 2021. 02. 09)에 따르면, 미용 전공 대학생 중 전문대 졸업생의 취업률은 68.5%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2년제 졸업생과 비교하여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4학년에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졸업을 앞둔 4학년이 진로에 대한 장벽을 자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 소재지별 구분의 경우에 진로장벽 중 자기 명확성 부족($t=2.056, p<.05$)과 직업정보 부족($t=1.980, p<.05$)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 구분에서는 자기 명확성 부족($t=3.490, p<.01$)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나머지는 유의하지 않았다. 자기 명확성 부족의 경우에는 재학 중인 학교별 차이는 2년제가 4년제보다 더 높은 것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2년제 대학생들은 짧은 재학기간 동안 직업시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어 취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4년제 학생들보다 진로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김중운, 박성실, 2013).

전공 분야별 같은 경우에 대인관계 어려움 및 자기 명확성 부족, 직업정보 부족을 제외한 요인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F=5.506, p<.01$)에서는 피부 분야가 네일 분야보다 높고, 헤어 분야가 네일 분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어려움($F=4.230, p<.01$)에서는 피부 분야가 네일 분야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흥미 부족($F=3.248, p<.05$)은 헤어 분야가 네일 분야보다 높았으며, 미래 불안($F=5.337, p<.01$)은 메이크업 분야가 헤어 분야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헤어 전공 학생들이 네일 전공 학생들 보다 전공에 대한 재미나 흥미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승자, 김정원(2019)의 한국 이·미용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준비생과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미용사(일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시기는 고등학교 15.4%로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진로 체험이나 다양한 프로그램과 경험을 통해 흥미와 적성에 맞아서 또는 전문 직업을 갖기 위해 미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헤어 전공 학생들은 대학 진학 전부터 일찍 실기 교육을 경험해 본 경우가 많아 이 항목에서 높은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전공 학생들이 헤어 전공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 사회 분위기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하여 외부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보내기 때문에 전문적인 뷰티 서비스를 받던 소비자들은 피부에 자극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스킨케어에 집중하는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다(의학신문, 2021, 검색일자 : 2021. 01. 03). 또한 화장품 브랜드들은 메이크업 시연 등 대면 접촉이나 체험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메이크업 일일 클래스를 중단하는 등 신종 코로나 우려

로 온라인 판매에 집중하고 있어 신입 채용은 취업이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메이크업 전공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높게 나타났다고 추론할 수 있다.

전공 만족도별 구분의 경우에 진로장벽의 모든 요인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 < .001$). 사후분석에서 진로장벽 모든 요인의 전공 만족도 차이는 하(下)가 가장 높았고 중(中), 상(上)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 만족도에서는 모든 요인의 전공 만족도 차이에서 하(下)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진로에 대해 자각하는 장애요인이 높을수록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김상호, 정은성(2016), 김은선 외(2018)의 연구에서도 진로장벽을 높게 자각할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은 낮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미용관련 국가자격증 취득여부별 구분의 경우에 자기 명확성 부족($t = -2.041$, $p < .05$)에서만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취득한 자격증의 종류별 구분의 경우에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F = 5.289$, $p < .01$), 경제적 어려움($F = 4.567$, $p < .01$), 흥미 부족($F = 5.163$, $p < .01$), 미래 불안($F = 3.950$, $p < .01$) 요인에서만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의 취득한 자격증의 종류별 차이는 미용사(피부)가 미용사(네일)보다 높았으며, 미용사(일반)도 미용사(네일)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 및 미래 불안의 전공분야별 차이는 미용사(피부)가 미용사(네일)보다 높게 나타났고, 흥미 부족의 경우 미용사(일반)보다 미용사(네일)이 높은 결과로 확인되었다.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의 방향의 경우에 진로장벽의 모든 요인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F = 9.580$, $p < .001$)의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의 방향별 차이는 사무직이 편입·대학원·유학, 실무취업보다

높았으며, 미정이 편입·대학원·유학, 실무 취업보다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대인 관계 어려움($F=6.519$, $p<.001$)의 경우, 미정이 교육강사, 편입·대학원·유학, 실무취업보다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F=7.525$, $p<.001$)은 사무직이 편입·대학원·유학, 실무취업보다 높았고, 미정이 편입·대학원·유학, 실무취업보다 높았다. 자기 명확성 부족($F=9.624$, $p<.001$)에서는 미정이 편입·대학원·유학, 사무직보다 높았고, 흥미 부족($F=7.889$, $p<.001$)의 경우는 미정이 편입·대학원·유학보다 높았고, 미정이 실무취업보다 높았으며, 직업정보 부족($F=6.967$, $p<.001$)에서는 미정이 편입·대학원·유학, 교육강사, 실무취업보다 높은 결과로 차이가 있었다. 미래 불안($F=10.742$, $p<.001$)은 사무직, 미정, 창업이 편입·대학원·유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무직이 실무취업보다 높고, 미정이 실무취업보다 높았다.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 방향에서는 진로장벽의 모든 요인에 전체적으로 사무직이나 미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장벽은 특정 시기의 진로환경과 개인의 주관적 판단, 직업과 진로에 대한 준비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직업 선택에 대한 확신이 낮거나 진로 미결정 수준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희망하는 직업 분야의 경험 차이에 있어서는 대인관계 어려움($t=-3.101$, $p<.01$), 자기 명확성 부족($t=-5.852$, $p<.01$) 및 직업정보 부족($t=-3.333$, $p<.01$) 요인에 대해서만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희망 직업 분야의 직업 경험별 차이는 없음이 있음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의 항목별 구분의 경우에는 진로장벽 중 흥미 부족, 직업정보 부족 및 미래 불안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후분석에서 대인관계 어려움($F=4.493$, $p<.001$)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인성교육, 미용분야 경력이 성적관

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미용 전공 대학생들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느낄수록 취업 준비 시 성적관리보다는 인성교육과 미용 분야의 경력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의 항목별 구분에서는 진로장벽 중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F=20.904$, $p<.001$), 경제적 어려움($F=8.690$, $p<.001$), 자기 명확성 부족($F=4.096$, $p<.001$), 흥미 부족($F=13.554$, $p<.001$), 직업정보 부족($F=8.554$, $p<.001$), 미래 불안($F=6.464$, $p<.001$)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의 차이는 연봉이 장래 전망, 작업환경, 복리후생, 기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 같은 경우, 연봉이 기술, 작업환경, 복리후생보다 높았고, 자기 명확성 부족에서는 연봉이 작업환경보다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흥미 부족은 연봉이 장래 전망, 기술, 작업환경보다 높았고, 직업정보 부족 항목별 차이는 연봉이 작업환경, 기술, 복리후생보다 높았으며, 장래 전망이 작업환경보다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미래 불안은 연봉이 기술, 작업환경보다 높은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용 전공 대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진로장벽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결정 시 연봉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장벽 차이분석

인구통계적 변인		진로장벽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대인관계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자기 명확성 부족	흥미 부족	직업정보 부족	미래 불안
학년	1학년 ^a	1.76	2.45	2.17	2.65	2.19	2.67	2.86
	2학년 ^b	1.90	2.59	2.44	2.66	2.31	2.76	3.09
	3학년 ^c	1.65	2.61	2.12	2.44	2.19	2.61	3.03
	4학년 ^d	2.16	2.52	2.52	2.43	2.37	2.84	3.17
	F값	8.505***	0.984	6.527***	4.431**	1.747	1.270	2.899*
	사후비교	d>c, d>a	-	d>c, d>a, b>c	-	-	-	-
대학 소재지	수도권 ^a	1.87	2.52	2.30	2.61	2.24	2.77	3.06
	비수도권 ^b	1.85	2.60	2.36	2.47	2.32	2.60	2.99
	t값	0.242	-0.892	-0.829	2.056*	-1.001	1.980*	0.891
	사후비교	-	-	-	a>b	사후비교	-	a>b
학교 유형	2년제 ^a	1.92	2.56	2.35	2.68	2.29	2.73	3.00
	4년제 ^b	1.81	2.54	2.29	2.47	2.24	2.71	3.07
	t값	1.521	0.293	0.877	3.490**	0.729	0.295	-0.850
	사후비교	-	-	-	a>b	-	-	-
전공분야	해어 ^a	1.91	2.49	2.35	2.50	2.38	2.56	2.81
	메이크업 ^b	1.85	2.51	2.28	2.55	2.23	2.77	3.22
	네일 ^c	1.62	2.55	2.12	2.54	2.10	2.68	3.04
	피부 ^d	2.03	2.65	2.50	2.67	2.31	2.88	3.09
	F값	5.506**	0.916	4.230**	1.515	3.248*	2.812*	5.337**
	사후비교	d>c, a>c	-	d>c	-	a>c	-	b>a
전공 만족도	상 ^a	1.51	2.30	2.05	2.19	1.78	2.26	2.61
	중 ^b	2.04	2.66	2.46	2.76	2.52	2.96	3.30
	하 ^c	2.63	3.14	2.88	3.36	3.22	3.66	3.65
	F값	51.210***	22.083***	24.062***	85.628***	136.728***	63.698***	57.134***
	사후비교	c>b>a	c>b>a	c>b>a	c>b>a	c>b>a	c>b>a	c>b>a
미용관련 국가자격증취득여부	예 ^a	1.88	2.51	2.32	2.53	2.26	2.69	3.03
	아니요 ^b	1.81	2.65	2.31	2.67	2.29	2.80	3.05
	t값	0.921	-1.559	0.068	-2.041*	-0.405	-1.094	-0.248
	사후비교	-	-	-	b>a	-	-	-

취득한 자격증의 종류	미용사(일반) ^a	2.00	2.58	2.32	2.55	2.44	2.61	3.00
	미용사(피부) ^b	2.08	2.66	2.59	2.59	2.32	2.90	3.20
	미용사(네일) ^c	1.65	2.36	2.10	2.53	2.03	2.61	2.75
	미용사(메이크업) ^d	1.75	2.41	2.25	2.45	2.16	2.67	3.11
	F값	5.289**	2.521	4.567**	0.687	5.163**	1.837	3.950**
	사후비교	b>c, a>c	-	b>c	-	a>c	-	b>c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 방향	실무 취업 ^a	1.73	2.45	2.22	2.50	2.13	2.64	2.88
	창업 ^b	2.13	2.84	2.25	2.65	2.54	2.80	3.38
	편입·대학원·유학 ^c	1.58	2.33	1.97	2.24	2.13	2.35	2.69
	교육강사 ^d	2.06	2.30	2.45	2.61	2.26	2.46	3.16
	사무직 ^e	2.47	2.69	2.73	2.48	2.56	2.96	3.52
	미정 ^f	2.06	2.94	2.68	2.98	2.59	3.18	3.42
	F값	9.580***	6.519***	7.525***	9.624***	7.889***	6.967***	10.742***
	사후비교	e>c, e>a, f>c, f>a	f>d, f>c, f>a	e>c, f>c, e>a, f>a	f>c, f>e, f>a	f>c, f>a	f>c, f>d, f>a	e>c, f>c, b>c, e>a, f>a
희망직업분야 직업경험유무	있음 ^a	1.81	2.43	2.30	2.39	2.20	2.58	2.98
	없음 ^b	1.91	2.66	2.34	2.73	2.32	2.86	3.09
	t값	-1.407	-3.101**	-0.514	-5.852***	-1.791	-3.333**	-1.491
	사후비교	-	b>a	-	b>a	-	b>a	-
취업 준비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자격증 취득 ^a	1.70	2.45	2.20	2.61	2.26	2.66	3.04
	전공실기 교육 ^b	1.83	2.56	2.28	2.48	2.21	2.84	2.90
	인성교육 ^c	1.84	2.85	2.43	2.47	2.10	2.45	2.92
	성적관리 ^d	1.91	1.78	1.76	2.13	2.04	2.73	2.71
	취업정보 수집 ^e	1.77	2.39	2.07	2.58	2.15	2.87	3.17
	미용분야 경력 ^f	2.01	2.59	2.47	2.65	2.39	2.76	3.16
	F값	2.339*	4.493***	3.614**	2.356*	2.209	1.681	2.065
사후비교	-	c>d, f>d	-	-	-	-	-	
취업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연봉 ^a	2.31	2.66	2.62	2.74	2.57	3.01	3.27
	장래전망 ^b	1.61	2.52	2.29	2.53	1.98	2.88	3.13
	복리후생 ^c	1.72	2.41	2.23	2.47	2.34	2.57	2.95
	기술 ^d	1.73	2.50	2.06	2.55	2.07	2.54	2.76
	작업환경 ^e	1.62	2.51	2.14	2.44	2.14	2.45	2.87
	F값	20.904***	1.229	8.690***	4.096**	13.554***	8.554***	6.464***
	사후비교	a>b, a>e, a>c, a>d	-	a>d, a>e, a>c	a>e	a>b, a>d, a>e	a>e, a>d, a>c, b>e	a>d, a>e
전 제	1.86	2.55	2.32	2.57	2.26	2.72	3.04	

* p<0.05, ** p<0.01, *** p<0.00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 특성 차이분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학교 유형별 구분의 경우에는 계획성($t=-2.097, p<.05$)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4년제가 2년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4년제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2년제에 재학 중인 학생들보다 진로에 대한 사전이해와 관심이 높고, 정보수집 능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김경화(2016)의 연구에서도 4년제 대학생들이 2년제 대학생들보다 진로성숙 수준이 높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

전공 만족도별 차이에서는 진로성숙도의 자립성($F=17.036, p<.001$), 확고성($F=47.337, p<.001$), 계획성($F=28.060, p<.001$) 모든 요인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립성의 전공 만족도별 차이는 상(上)이 중(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확고성 및 계획성의 경우 상(上)이 중(中)보다 높고, 하(下)보다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교과목, 교과목 간의 연계성에 대해 만족할수록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서도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며 진로성숙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성숙도가 높다고 보고한 강영숙, 이은정(2006), 정희영(2010)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또한 전공에 대한 높은 만족이 진로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져 자발적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성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미용관련 국가자격증 취득 여부별 구분의 경우에는 진로성숙도 중 자립성($t=2.083, p<.05$) 및 확고성($t=2.076, p<.05$)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취득함(예)이 취득하지 않음(아니요)보다 높았다.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 방향의 경우에는 진로성숙도의 자립성($F=3.155, p<.01$), 확고성($F=10.840, p<.001$) 계획성($F=9.083, p<.001$) 모든 요인에서 집단별

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 방향이 편입·대학원·유학일 경우 미정보다 자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고성이 높은 경우는 편입·대학원·유학, 사무직, 실무취업이 미정보다 높았고, 그리고 편입·대학원·유학이 실무취업보다 확고성이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계획성은 사무직이 미정, 창업, 실무취업보다 높고, 편입·대학원·유학이 미정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미용 전공 학생들은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편입, 대학원, 유학 등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체로 미정보다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나, 명확한 결정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필요한 가치에 따라 적합한 환경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희망하는 직업 분야의 경험 차이에서는 자립성($t=2.614, p<.01$), 확고성($t=3.790, p<.001$), 계획성($t=4.676, p<.001$) 진로성숙도의 모든 요인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희망직업 분야의 직업 경험별 차이는 있음이 없음보다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취업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진로성숙도 중 자립성($F=5.966, p<.001$) 요인만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립성의 취업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별 차이는 장래 전망, 작업환경이 연봉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용 전공 대학생 중 자립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연봉보다는 장래 전망이나 작업환경을 생각하여 진로를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

김인아(2013)의 미용업 근로자의 작업환경 유해 요인과 건강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뷰티산업은 인적 서비스 산업으로 육체적인 노동 부하가 매우 크고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유해인자 등 작업환경으로 인해 건강 문제의 우려를 밝혔고, 2013년 2월 청년유니온은 미용업계의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대하여 언론을 통해 보도하였다(경향신문, 2019, 검색일자 : 2021. 02. 03). 이처럼 미용 전공 학생들이 취업 결정 시 장래 전망 또는 작업환경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현 미용 서비스업계의 작업환경과 연관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분석

인구통계적 변인		진로성숙도		
		자립성	확고성	계획성
학교 유형	2년제 ^a	4.23	3.56	3.73
	4년제 ^b	4.31	3.67	3.84
	t값	-1.599	-1.959	-2.097*
	사후비교	-	-	b>a
전공 만족도	상 ^a	4.43	3.94	4.01
	중 ^b	4.14	3.38	3.66
	하 ^c	4.24	3.49	3.49
	F값	17.036***	47.337***	28.060***
	사후비교	a>b	a>b, a>c	a>c, a>b
미용관련 국가자격증취득 여부	예 ^a	4.30	3.66	3.81
	아니요 ^b	4.19	3.52	3.75
	t값	2.083*	2.076*	1.050
	사후비교	a>b	a>b	-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 방향	실무 취업 ^a	4.27	3.63	3.78
	창업 ^b	4.30	3.61	3.62
	편입·대학원·유학 ^c	4.48	3.98	4.04
	교육강사 ^d	4.13	3.66	3.80
	사무직 ^e	4.38	3.95	4.24
	미정 ^f	4.14	3.23	3.56
	F값	3.155**	10.840***	9.083***
	사후비교	c>f	c>f, e>f, a>f, c>a	e>f, e>b, c>f, e>a
희망직업분야 직업경험유무	있음 ^a	4.34	3.73	3.92
	없음 ^b	4.21	3.51	3.67
	t값	2.614**	3.790***	4.676***
	사후비교	a>b	a>b	a>b
취업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연봉 ^a	4.11	3.54	3.74
	장래전망 ^b	4.40	3.68	3.88
	복리후생 ^c	4.24	3.69	3.77
	기술 ^d	4.34	3.66	3.87
	작업환경 ^e	4.35	3.62	3.77
	F값	5.966***	0.948	1.068
	사후비교	b>a, e>a	-	-
전 체		4.27	3.62	3.79

* $p<.05$, ** $p<.01$, *** $p<.001$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특성 차이분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학년별 구분의 경우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계획수립($F=2.980, p<.05$)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계획수립의 학년별 차이는 4학년이 1학년보다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4학년의 경우, 다른 학년보다 진로 계획을 스스로 결정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 발달에 변화가 있다는 이은경(2001), 고태용(2008), 양은주(2017) 등 다수의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전공분야별 구분의 경우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정보수집($F=6.376, p<.001$)에서만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헤어 전공이 메이크업 전공, 네일 전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헤어 전공 학생들이 다른 전공 학생들보다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행동이 적극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전공 만족도별 구분의 경우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계획수립($F=26.244, p<.001$), 자기평가($F=32.290, p<.001$), 목표선택($F=40.619, p<.001$), 정보수집($F=14.765, p<.001$) 모든 요인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다. 계획수립의 전공 만족도별 차이는 상(上)이 하(下), 중(中)보다 높은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자기평가, 목표선택, 정보수집에서는 상(上)이 중(中), 하(下)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조현재(2014)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학생들이 전공 교과나 학과 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 진학에 대한 미래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믿음이 향상되고, 학습수행 중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피드백을 받는다고 느낄수록 관심 있는 학업이나 진로를 자신 있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용관련 국가자격증 취득여부별 구분의 경우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계획수립($t=2.306, p<.05$)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다. 계획수립의 미용관련 국가자격증 취득여부별 차이는 취득함(예)이 취득하지 않음(아니요)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미용 관련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다른 대안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미용 분야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으로 뷰티 산업의 인식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미용 인력 구성도 계열화, 전문화, 세분화, 고학력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가로서 지식과 전문 기술자격을 소지해야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고려되는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국가 기술 자격증 제도라 할 수 있다(이보현, 나운영, 2020).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미용 관련 업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기 위해서는 국가 자격증 취득은 필수화되고 있어, 미용 전공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미래 취업과 진로를 위해 전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취득한 자격증의 종류별 구분의 경우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계획수립($F=4.526, p<.01$) 및 정보수집($F=5.571, p<.01$)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계획수립의 취득한 자격증의 종류별 차이는 미용사(일반)가 미용사(메이크업)보다 높은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수집의 경우, 미용사(일반)가 미용사(메이크업)보다 높고, 미용사(네일)가 미용사(메이크업)보다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 방향의 경우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계획수립($F=8.161, p<.001$), 자기평가($F=7.335, p<.001$), 목표선택($F=7.087, p<.001$), 정보수집($F=5.546, p<.001$) 모든 요인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졸업 후 진로를 사무직, 편입·대학원·유학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은 졸업 후 희

망하는 진로 방향이 미정인 학생들보다 계획수립이 높고, 또한 진로를 편입·대학원·유학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은 졸업 후 진로 방향을 실무취업, 창업인 학생들 보다 계획수립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 방향이 사무직인 학생들은 실무취업, 창업, 미정인 학생들보다 자기평가가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직업 분야의 경험 차이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계획수립($t=4.125, p<.001$), 자기평가($t=4.157, p<.001$), 목표선택($t=4.287, p<.001$), 정보수집($t=3.419, p<.01$) 모든 요인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있음이 없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용 전공 대학생들은 희망하는 직업 분야에 있어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참여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취업 준비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의 경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계획수립($F=3.310, p<.01$), 자기평가($F=3.399, p<.01$), 정보수집($F=3.847, p<.01$)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계획수립의 취업 준비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별 차이는 성적관리가 자격증 취득, 인성교육, 미용분야 경력보다 높았고, 자기평가의 경우 성적관리가 자격증 취득, 미용분야 경력보다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정보수집에서는 집단별로 차이가 없었다.

취업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의 항목별 구분의 경우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계획수립($F=4.409, p<.05$), 목표선택($F=7.688, p<.001$), 정보수집($F=2.433, p<.01$)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다. 취업 결정 시 기술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학생은 연봉, 작업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학생보다 계획수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 결정 시 기술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학생이 연봉, 복리후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보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차이분석

인구통계적 변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계획수립	자기평가	목표선택	정보수집
학년	1학년 ^a	3.39	3.63	3.83	3.07
	2학년 ^b	3.50	3.65	3.87	3.12
	3학년 ^c	3.54	3.67	3.87	3.13
	4학년 ^d	3.64	3.82	3.95	3.15
	F값	2.980*	2.419	0.764	0.198
	사후비교	d>a	-	-	-
전공분야	해어 ^a	3.53	3.68	3.86	3.33
	메이크업 ^b	3.54	3.73	3.89	2.93
	네일 ^c	3.44	3.64	3.87	3.05
	피부 ^d	3.52	3.69	3.87	3.13
	F값	0.611	0.483	0.051	6.376***
	사후비교	-	-	-	a>b, a>c
전공 만족도	상 ^a	3.74	3.91	4.14	3.33
	중 ^b	3.34	3.51	3.66	2.95
	하 ^c	3.34	3.62	3.79	2.98
	F값	26.244***	32.290***	40.619***	14.765***
	사후비교	a>c, a>b	a>b, a>c	a>b, a>c	a>b, a>c
미용관련 국가자격증 취득여부	예 ^a	3.55	3.70	3.89	3.15
	아니요 ^b	3.40	3.64	3.84	3.02
	t값	2.306*	1.132	0.856	1.589
	사후비교	a>b	-	-	-
취득한 자격증의 종류	미용사(일반) ^a	3.70	3.75	3.88	3.33
	미용사(피부) ^b	3.48	3.72	3.94	3.06
	미용사(네일) ^c	3.61	3.68	3.96	3.28
	미용사(메이크업) ^d	3.40	3.66	3.80	2.94
	F값	4.526**	0.511	1.127	5.571**
	사후비교	a>d	-	-	a>d, c>d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 방향	실무 취업 ^a	3.48	3.65	3.92	3.17
	창업 ^b	3.38	3.61	3.82	3.18
	편입·대학원·유학 ^c	3.85	3.87	4.01	3.08
	교육강사 ^d	3.57	3.76	3.97	3.31
	사무직 ^e	3.86	4.11	4.05	3.36
	미정 ^f	3.27	3.50	3.53	2.72
	F값	8.161***	7.335***	7.087***	5.546***
사후비교	e>f, c>f, c>b, c>a	e>f, e>b, e>a, c>f	e>f, c>f, d>f, a>f	e>f, d>f, a>f	

희망직업분야 직업경험유무	있음 ^a	3.63	3.79	3.99	3.23
	없음 ^b	3.40	3.58	3.76	3.00
	t값	4.125***	4.157***	4.287***	3.419**
	사후비교	a>b	a>b	a>b	a>b
취업 준비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자격증 취득 ^a	3.41	3.60	3.92	2.99
	전공실기 교육 ^b	3.54	3.70	3.85	2.95
	인성교육 ^c	3.46	3.78	3.93	3.29
	성적관리 ^d	4.11	4.21	4.25	3.65
	취업정보 수집 ^e	3.60	3.60	3.82	3.20
	미용분야 경력 ^f	3.51	3.67	3.81	3.18
	F값	3.310**	3.399**	1.850	3.847**
	사후비교	d>a, d>c, d>f	d>a, d>f	-	-
취업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연봉 ^a	3.41	3.65	3.70	3.10
	장래전망 ^b	3.54	3.72	3.92	2.96
	복리후생 ^c	3.52	3.66	3.78	3.36
	기술 ^d	3.82	3.58	4.15	3.15
	작업환경 ^e	3.47	3.74	3.97	3.11
	F값	4.409**	1.107	7.688***	2.433*
	사후비교	d>a, d>e	-	d>a, d>c, e>a	-
전 체	3.51	3.68	3.87	3.11	

* $p < .05$, ** $p < .01$, *** $p < .001$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특성 차이분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학년별 구분의 경우에 정보수집행동($F=8.179$, $p<.001$), 실천적 노력행동($F=2.791$, $p<.05$)에 대해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보수집행동의 학년별 차이는 4학년이 1학년보다 높았고, 3학년이 1학년보다 높았으며, 2학년이 1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준비 및 결정에 있어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고 있듯이(김봉환, 1997; 김선중, 2005; 손은령, 손진희, 2005), 본 연구에서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체적인 진로준비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 수집과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학년이 낮을수록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탐색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학교 차원에서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자기탐색과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박중길, 이한, 2006).

대학 소재지별 구분의 경우에 진로준비행동 중 정보수집행동($t=-3.824$, $p<.001$)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보수집행동의 대학 소재지별 차이는 비수도권 대학이 수도권 대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 구분의 경우에도 진로준비행동 중 정보수집행동($t=-2.391$, $p<.05$)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보수집행동의 재학 중인 학교별 차이는 4년제가 2년제보다 높은 결과로 차이가 있었다. 이를 통해 4년제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2년제에 재학 중인 대학생보다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노력하는 행동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년제, 3년제와 같은 전문대학의 학생들이 수업연한이 짧고 4년제 학생들보다 산업현장에 빨리 투입

되기 때문에 직업탐색이나 이와 관련된 정보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신지영 외, 2012).

전공 만족도별 구분의 경우에 진로준비행동의 정보수집행동($F=18.451, p<.001$), 실천적 노력행동($F=18.544, p<.001$) 모든 요인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진로준비행동의 모든 요인에 대한 전공 만족도별 차이는 상(上)이 하(下), 중(中)보다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용 전공 대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흥미를 갖고 학습에 충실한 학생이 진로준비행동에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직무 연관성이나 자긍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연결되고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이은아 외, 2020), 학교생활 만족도나 전공몰입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미용 관련 국가자격증 취득여부별 구분의 경우에 진로준비행동 중 실천적 노력행동($t=2.165, p<.05$)요인만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천적 노력행동의 미용관련 국가자격증 취득여부별 차이는 취득함(예)이 취득하지 않음(아니요)보다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 요인 중 실천적 노력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미용 전공 학생들은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취득한 자격증의 종류별 구분의 경우에 진로준비행동 중 정보수집행동($F=4.605, p<.01$)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보수집행동의 취득한 자격증의 종류별 차이는 미용사(네일)와 미용사(일반)이 미용사(메이크업)보다 높았다.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 방향의 경우에 진로준비행동 정보수집행동($F=4.337, p<.01$), 실천적 노력행동($F=6.197, p<.001$)의 모든 요인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보수집행동의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유형별 차이는 편

입·대학원·유학이 미정보다 높고, 실천적 노력행동의 경우, 사무직, 편입·대학원·유학, 실무취업이 미정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희망하는 직업 분야의 경험 차이를 살펴보면, 진로준비행동 정보수집행동($t=5.120, p<.001$), 실천적 노력행동($t=5.309, p<.001$)의 모든 요인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진로준비행동의 모든 요인에 대한 희망 직업 분야의 직업 경험별 차이는 있음이 없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미용 전공 대학생들은 희망하는 직업 분야의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참여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실천적인 진로준비행동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취업 준비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의 정보수집행동($F=4.262, p<.01$), 실천적 노력행동($F=4.580, p<.001$)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성적관리가 자격증 취득보다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진로준비행동의 정보수집행동($F=3.771, p<.01$), 실천적 노력행동($F=3.846, p<.01$) 모든 요인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보수집행동의 취업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별 차이는 기술이 작업환경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실천적 노력행동의 경우, 복리후생이 작업환경보다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10〉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차이분석

인구통계적 변인	진로준비행동		
	정보수집 행동	실천적 노력 행동	
학년	1학년 ^a	2.50	3.06
	2학년 ^b	2.86	3.21
	3학년 ^c	2.95	3.23
	4학년 ^d	2.95	3.40
	F값	8.179***	2.791*
	사후비교	d>a, c>a, b>a	d>a
대학 소재지	수도권 ^a	2.72	3.18
	비수도권 ^b	3.01	3.30
	t값	-3.824***	-1.370
	사후비교	b>a	-
학교 유형	2년제 ^a	2.71	3.13
	4년제 ^b	2.89	3.28
	t값	-2.391*	-1.907
	사후비교	b>a	-
전공 만족도	상 ^a	3.05	3.48
	중 ^b	2.67	3.02
	하 ^c	2.41	3.01
	F값	18.451***	18.544***
	사후비교	a>c, a>b	a>c, a>b
미용관련 국가자격증취득 여부	예 ^a	2.81	3.27
	아니요 ^b	2.81	3.08
	t값	0.035	2.165*
	사후비교	-	a>b
취득한 자격증의 종류	미용사(일반) ^a	2.95	3.24
	미용사(피부) ^b	2.69	3.42
	미용사(네일) ^c	3.01	3.38
	미용사(메이크업) ^d	2.63	3.11
	F값	4.605**	2.383
	사후비교	c>d, a>d	-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 방향	실무 취업 ^a	2.79	3.22
	창업 ^b	2.94	3.12
	편입·대학원·유학 ^c	3.08	3.55
	교육강사 ^d	3.03	3.37
	사무직 ^e	3.00	3.56
	미정 ^f	2.50	2.83
	F값	4.337**	6.197***
	사후비교	c>f	e>f, c>f, a>f

희망직업분야 직업경험유무	있음 ^a	3.00	3.42
	없음 ^b	2.63	3.02
	t값	5.120 ^{***}	5.309 ^{***}
	사후비교	a>b	a>b
취업 준비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자격증 취득 ^a	2.59	2.95
	전공실기 교육 ^b	2.74	3.26
	인성교육 ^c	2.98	3.31
	성적관리 ^d	3.38	3.84
	취업정보 수집 ^e	2.85	3.43
	미용분야 경력 ^f	2.90	3.26
	F값	4.262 ^{**}	4.580 ^{***}
	사후비교	d>a	d>a
취업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연봉 ^a	2.80	3.18
	장래전망 ^b	2.77	3.41
	복리후생 ^c	3.00	3.32
	기술 ^d	3.09	3.41
	작업환경 ^e	2.65	3.02
	F값	3.771 ^{**}	3.846 ^{**}
	사후비교	d>e	c>e
전 체	2.81	3.22	

* $p<.05$, ** $p<.01$, *** $p<.001$

4.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각 항목변수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고,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검증된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각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표 11〉은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검증을 시행한 결과로, 진로장벽 중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변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계획수립 변수와 정보수집 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준비행동 중 실천적 노력행동 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진로장벽 중 경제적 어려움 변수는 진로성숙도 중 계획성 변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계획수립 변수 및 정보수집 변수에 대해 유의하지 않았으며, 진로준비행동의 모든 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성숙도 중 자립성 변수는 진로준비행동 중 정보수집행동 변수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나머지 모든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p < .05$).

<표 11> 상관관계 분석

구분	평균	표준 편차	중요 타인과의 갈등	대인 관계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자기 명확성 부족	흥미 부족	직업정보부족	미래 불안	자립성	확고성	계획성	계획 수립	자기 평가	목표 선택	정보 수집	정보 수집 행동	
진로 장벽	중요한 타인과의갈등	1.86	0.894	1														
	대인관계어려움	2.55	0.952	.317**	1													
	경제적어려움	2.32	0.943	.515**	.395**	1												
	자기 명확성부족	2.57	0.762	.384**	.477**	.376**	1											
	흥미 부족	2.26	0.819	.542**	.387**	.342**	.470**	1										
	직업정보부족	2.72	1.049	.340**	.426**	.317**	.519**	.411**	1									
	미래 불안	3.04	0.960	.375**	.438**	.469**	.471**	.476**	.545**	1								
진로 성숙 도	자립성	4.27	0.614	-.395**	-.158**	-.175**	-.239**	-.413**	-.136**	-.165**	1							
	확고성	3.62	0.746	-.118**	-.345**	-.132**	-.530**	-.383**	-.295**	-.325**	.497**	1						
	계획성	3.79	0.666	-.120**	-.220**	-0.020	-.350**	-.376**	-.267**	-.186**	.419**	.576**	1					
진로 결정 자기 효능 감	계획수립	3.51	0.705	-0.043	-.279**	-.160**	-.404**	-.341**	-.367**	-.351**	.356**	.588**	.462**	1				
	자기평가	3.68	0.631	-.119**	-.199**	-0.042	-.348**	-.344**	-.292**	-.296**	.475**	.595**	.469**	.606**	1			
	목표선택	3.87	0.678	-.337**	-.228**	-.213**	-.361**	-.423**	-.320**	-.296**	.567**	.499**	.453**	.559**	.542**	1		
	정보수집	3.11	0.877	0.062	-.202**	-0.061	-.237**	-.177**	-.331**	-.262**	.180**	.390**	.334**	.491**	.356**	.357**	1	
진로 준비 행동	정보수집행동	2.81	0.929	.095*	-.154**	-0.051	-.249**	-.204**	-.236**	-.190**	0.066	.383**	.348**	.525**	.400**	.268**	.472**	1
	실천적노력행동	3.22	0.969	0.023	-.155**	0.017	-.280**	-.315**	-.162**	-.170**	.282**	.506**	.475**	.534**	.477**	.354**	.356**	.627**

* $p < .05$, ** $p < .01$, *** $p < .001$

5.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 및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1)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 및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1)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계획수립’에 대한 진로장벽 유의성은 $p<.000$ 으로 확인되었으며,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요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계획수립’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 명확성 부족’, ‘흥미 부족’ 및 ‘직업정보 부족’ 요인은 $p<.001$ 유의수준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계획수립’ 요인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 불안’ 요인은 $p<.01$ 유의수준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계획수립’ 요인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나머지 요인들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계획수립’ 요인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자기평가’에 대한 진로장벽의 유의성은 $p<.000$ 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제적 어려움’ 요인은 $p<.001$ 유의수준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자기평가’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요인은 $p<.05$ 유의수준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자기평가’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자기 명확성 부족’ 요인과 ‘흥미 부족’ 요인은 $p<.001$ 유의수준에서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 중 ‘자기평가’ 요인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미래 불안’ 요인은 $p < .01$ 유의수준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자기평가’ 요인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나머지 요인들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자기평가’ 요인에 유의하지 않았다.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목표선택’에 대한 진로장벽 유의성은 $p < .000$ 으로 확인되었으며, ‘흥미 부족’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목표선택’ 요인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자기 명확성 부족’ 요인은 $p < .01$ 유의수준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목표선택’ 요인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였고,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및 ‘직업정보 부족’ 요인은 $p < .05$ 유의수준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목표선택’ 요인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나머지 요인들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목표선택’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정보수집’에 대한 진로장벽 유의성은 $p < .000$ 으로 확인되었으며,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정보수집’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직업정보 부족’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정보수집’ 요인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흥미 부족’ 및 ‘미래 불안’ 요인은 $p < .05$ 유의수준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정보수집’ 요인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요인들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정보수집’ 요인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력, 부적 영향력을 갖는 요인들이 혼재되어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즉, 진로장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항상 부정적인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미용 전공 대학생들이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을 인식할수록 계획수립과 자기평가, 정보수집에는 적극적으로 행동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미용 전공 대학생들은 자기 명확성 부족 수준과 미래 불안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진로에 대한 계획수립에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흥미 부족, 직업정보 부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진로에 대한 장벽이 과도한 것은 진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적절한 인식은 오히려 현실적인 진로 발달을 가능하게 하며 진로장벽을 극복한 경험은 미래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성식, 2007).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고 어떤 행동을 수행할 때, 개인적 신념이나 일차적 중재 변인이 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Bandura, 1986). 즉, 대학생들이 관심 있는 직업을 찾아내고 그 직업의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자신감과 진학, 취업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믿음을 확고히 가질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고태용, 2008).

김선중(200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장벽 해소를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통해 진로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행동을 수행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획일화된 진로상담이 아닌, 개인의 상황에 따른 차별적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높이 자각하는 장벽의 내용과 그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12〉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계획 수립	(상수)	4.782	.098	.	48.731	.000***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241	.035	.306	6.869	.000***
	대인관계 어려움	-.027	.031	-.037	-0.887	.375
	경제적 어려움	-.016	.032	-.021	-0.481	.631
	자기 명확성 부족	-.222	.041	-.240	-5.417	.000***
	흥미 부족	-.216	.039	-.251	-5.616	.000***
	직업정보 부족	-.104	.030	-.155	-3.523	.000***
	미래 불안	-.091	.034	-.123	-2.697	.007**
		R=.532	R ² =.283	F=35.268***		
진로 결정	(상수)	4.619	.092	.	50.148	.000***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066	.033	.094	2.015	.044*
	대인관계 어려움	.003	.029	.005	.118	.906
	경제적 어려움	.114	.030	.171	3.780	.000***
	자기 명확성 부족	-.184	.038	-.222	-4.785	.000***
	흥미 부족	-.191	.036	-.248	-5.283	.000***
	직업정보 부족	-.050	.028	-.083	-1.812	.070
	미래 불안	-.096	.032	-.146	-3.042	.002**
		R=.459	R ² =.211	F=23.879***		
자기 효능감	(상수)	5.008	.098	.	51.297	.000***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091	.035	-.120	-2.595	.010*
	대인관계 어려움	.018	.031	.025	.585	.559
	경제적 어려움	.019	.032	.027	.600	.549
	자기 명확성 부족	-.137	.041	-.154	-3.364	.001**
	흥미 부족	-.207	.038	-.250	-5.394	.000***
	직업정보 부족	-.065	.029	-.100	-2.200	.028*
	미래 불안	-.020	.033	-.029	-.605	.545
		R=.480	R ² =.231	F=26.804***		
정보 수집	(상수)	4.122	.130	.	31.727	.000***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297	.047	.302	6.372	.000***
	대인관계 어려움	-.050	.041	-.055	-1.242	.215
	경제적 어려움	.015	.043	.017	.363	.716
	자기 명확성 부족	-.099	.054	-.086	-1.821	.069
	흥미 부족	-.131	.051	-.122	-2.567	.011*
	직업정보 부족	-.212	.039	-.254	-5.436	.000***
	미래 불안	-.112	.045	-.122	-2.516	.012*
		R=.432	R ² =.187	F=20.546***		

* $p < .05$, ** $p < .01$, *** $p < .001$

(2)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계획수립’에 대한 진로성숙도 유의성은 $p<.000$ 으로 ‘확고성’ 및 ‘계획성’ 요인은 $p<.001$ 유의수준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계획수립’ 요인에 정(+)¹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성’ 요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계획수립’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자기평가’에 대한 진로성숙도 유의성은 $p<.000$ 으로 확인되었으며, 진로성숙도의 모든 요인들은 $p<.001$ 유의수준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자기평가’ 요인에 정(+)¹의 유의하지 않았다.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목표선택’에 대한 진로성숙도 유의성은 $p<.000$ 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성숙도의 모든 요인들은 $p<.001$ 유의수준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목표선택’ 요인에 정(+)¹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정보수집’에 대한 진로성숙도 유의성은 $p<.000$ 으로 확인되었고, 진로성숙도의 모든 요인들은 $p<.001$ 유의수준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확고성’ 및 ‘계획성’ 요인은 0.1% 유의수준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정보수집’ 요인에 정(+)¹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립성’ 요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정보수집’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들은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확고성, 계획성, 자립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미용 전공 대학생들은 자립성이 높을수록 진로 결정 과정에서 자기평가, 목

표선택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고성 및 계획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에 대한 계획수립, 자기평가, 목표선택, 정보수집에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진로성숙도 요인 중 확고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관계가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이며, 확고성이 높다는 것은 진로 결정에 대한 나의 확신, 성공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높다는 의미로 진로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스스로 안정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높은 성공 가능성을 확신한다고 볼 수 있다(최은주, 김영란, 2012).

즉, 미용 전공 대학생들은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직업을 선택할 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개인의 생애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확신성이 진로성숙도와 직접적인 상관성이 있다는 최은주, 김영란(2012)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정희영(2010)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성숙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표 13〉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계획 수립	(상수)	.970	.171		5.676	.000***
	자립성	.062	.043	.054	1.449	.148
	확고성	.437	.039	.462	11.214	.000***
	계획성	.183	.042	.173	4.397	.000***
		R=.609	R ² =.371	F=123.779***		
진로 결정	(상수)	.987	.148		6.675	.000***
	자립성	.218	.037	.212	5.903	.000***
	확고성	.343	.034	.406	10.182	.000***
	계획성	.138	.036	.146	3.832	.000***
		R=.641	R ² =.411	F=146.313***		
자기 효능감	(상수)	.689	.160		4.310	.000***
	자립성	.434	.040	.393	10.886	.000***
	확고성	.186	.036	.205	5.100	.000***
	계획성	.174	.039	.171	4.451	.000***
		R=.634	R ² =.402	F=141.384***		
정보 수집	(상수)	1.208	.244		4.954	.000***
	자립성	-.070	.061	-.049	-1.150	.251
	확고성	.369	.056	.314	6.636	.000***
	계획성	.229	.059	.174	3.858	.000***
		R=.414	R ² =.172	F=43.534***		

*** $p < .001$

2)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 및 진로성숙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1)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 중 ‘정보수집행동’에 대한 진로장벽 유의성은 $p<.000$ 으로 확인되었으며,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요인은 $p<.001$ 유의수준에서 진로준비행동 중 ‘정보수집행동’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 명확성 부족’ 및 ‘흥미 부족’ 요인은 $p<.001$ 유의수준에서 진로준비행동 중 ‘정보수집행동’ 요인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정보 부족’ 요인은 $p<.01$ 유의수준에서 진로준비행동 중 ‘정보수집행동’ 요인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나머지 요인들은 진로준비행동 중 ‘정보수집행동’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 중 ‘실천적 노력행동’에 대한 진로장벽 유의성은 $p<.000$ 으로 확인되었으며,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요인은 $p<.001$ 유의수준에서 진로준비행동 중 ‘실천적 노력행동’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어려움’ 요인은 $p<.05$ 유의수준에서 진로준비행동 중 ‘정보수집행동’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 명확성 부족’ 및 ‘흥미 부족’ 요인은 $p<.001$ 유의수준에서 진로준비행동 중 ‘실천적 노력행동’ 요인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요인들은 진로준비행동 중 ‘실천적 노력행동’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미용 전공 대학생들이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부모갈등, 집안 사정과 같은 환경

적 요인이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추론한다. 또한, 환경적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행동적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자기 명확성 부족, 흥미 부족, 직업정보 부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정보수집행동에서 낮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용 전공 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이해 부족, 자신감 부족 등 심리적 장벽을 많이 할수록 미래의 직업과 삶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로 이어져 진로준비를 위한 적극적인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추론이다.

Swanson & Tokar(1991)는 진로장벽이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촉매제 역할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고 김선중(2005)은 진로장벽을 극복진로장벽과 좌절진로장벽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극복진로장벽을 많이 자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고 좌절진로장벽을 많이 자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진로장벽 자각 수준에 따라 관심과 노력을 달리 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수준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유수복, 2013; 김민정, 2016)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며,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안혜경, 2008; 이진우, 최바울, 2020)를 지지한다.

따라서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의 유형과 인식 정도를 살펴보고 진로장벽을 지나치게 높게 인식하고 있는지 정도를 파악하여,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장벽을 낮추도록 폭넓은 사고와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진로지도를 해야 한다.

〈표 14〉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진로준비행동	(상수)	3.783	.139		27.211	.000***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382	.050	.368	7.678	.000***
	대인관계 어려움	-.008	.043	-.008	-.185	.853
	경제적 어려움	-.028	.046	-.028	-.611	.541
	자기 명확성 부족	-.212	.058	-.174	-3.656	.000***
	흥미 부족	-.262	.055	-.231	-4.805	.000***
	직업정보 부족	-.125	.042	-.141	-2.987	.003**
	미래 불안	-.041	.048	-.042	-.853	.394
		R=.412	R ² =.169	F=18.246**		
실천적 노력 행동	(상수)	4.285	.143		30.046	.000***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294	.051	.271	5.757	.000***
	대인관계 어려움	-.021	.045	-.021	-.468	.640
	경제적 어려움	.117	.047	.113	2.489	.013*
	자기 명확성 부족	-.294	.059	-.231	-4.943	.000***
	흥미 부족	-.439	.056	-.371	-7.853	.000***
	직업정보 부족	.011	.043	.012	.252	.801
	미래 불안	-.037	.049	-.037	-.767	.443
		R=.444	R ² =.198	F=22.015***		

* $p < .05$, ** $p < .01$, *** $p < .001$

(2)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 중 ‘정보수집행동’에 대한 진로성숙도 유의성은 $p < .000$ 으로 확인되었으며, ‘확고성’ 및 ‘계획성’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진로준비행동 중 ‘정보수집행동’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립성’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진로준비행동 중 ‘정보수집행동’ 요인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 중 ‘실천적 노력행동’에 대한 진로성숙도 유의성은 $p < .000$ 으로 확인되었으며, ‘확고성’ 및 ‘계획성’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진로준비행동 중 ‘실천적 노력행동’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립성’ 요인은 진로준비행동 중 ‘실천적 노력행동’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성숙도의 요인 중 확고성, 계획성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보였으나, 자립성은 정보수집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립성이 높은 학생들은 정보수집행동과 실천적 노력행동이 낮았고, 확고성, 계획성이 높은 학생들은 이와 반대로 적극적인 정보수집행동과 실천적 노력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진로준비행동의 요인 중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이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김미숙, 2019)와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신의 진로에 관하여 확신이 있고, 진로에 대한 정보를 계획적으로 수집하는 능동적인 학생들은 진로준비행동이 높다는 송영선, 송현정(2015)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표 15〉 진로성숙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진 로 준 비 행 동	(상수)	1.327	.253		5.236	.000***	
	정보 수집 행동	자립성	-.311	.063	-.205	-4.920	.000***
		확고성	.439	.058	.352	7.595	.000***
		계획성	.322	.062	.231	5.207	.000***
		R=.449 R ² =.202 F=53.073***					
	실천적 노력 행동	(상수)	.095	.246		.386	.700
		자립성	-.013	.061	-.008	-.216	.829
		확고성	.456	.056	.351	8.116	.000***
계획성		.403	.060	.277	6.699	.000***	
R=.554 R ² =.307 F=92.950***							

*** $p < .001$

6.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 및 진로성숙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1)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 중 정보수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을 독립변수로 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계획수립’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진로준비행동 중 ‘정보수집행동’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변수는 $\beta = .368 > \beta = .232$ 를 확인하였고, ‘흥미 부족’ 변수도 $\beta = -.231 > \beta = -.120$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계획수립’ 매개변수는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변수와 ‘흥미 부족’ 변수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있었다.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을 독립변수로 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자기평가’를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진로준비행동 중 ‘정보수집행동’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변수는 $\beta = .368 > \beta = .338$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기 명확성 부족’ 변수는 $\beta = -.174 > \beta = -.141$ 임을 확인하였으며, ‘흥미 부족’ 변수도 $\beta = -.231 > \beta = -.153$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정보 부족’ 변수도 $\beta = -.141 > \beta = -.115$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자기평가’ 매개변수는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변수, ‘자기 명확성 부족’ 변수, ‘흥미 부족’ 변수 및 ‘직업정보 부족’ 변수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

다.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을 독립변수로 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목표선택’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진로준비행동 중 ‘정보수집행동’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변수는 $\beta = .368 < \beta = .394$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기 명확성 부족’ 변수는 $\beta = -.174 > \beta = -.141$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하였고, ‘흥미 부족’ 변수도 $\beta = -.231 > \beta = -.177$ 임을 확인하였으며, ‘직업정보 부족’ 변수도 $\beta = -.141 > \beta = -.119$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목표선택’ 매개변수는 ‘자기 명확성 부족’ 변수와 ‘흥미 부족’ 변수, ‘직업정보 부족’ 변수에 대해서 매개효과를 볼 수 있었다.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을 독립변수로 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정보수집’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진로준비행동 중 ‘정보수집행동’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변수는 $\beta = .368 > \beta = .254$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기 명확성 부족’ 변수는 $\beta = -.174 > \beta = -.142$ 임을 확인하였고, ‘흥미 부족’ 변수도 $\beta = -.231 > \beta = -.185$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정보수집’ 매개변수는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변수와 ‘자기 명확성 부족’ 변수, ‘흥미 부족’ 변수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장벽과 정보수집행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인들을 통해 관련될 수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Luzzo, 1997; Swanson et al., 1996)를 살펴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 역할이 자주 논의되고 있다. 이는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의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김선중(2004)의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진로장벽의 요인 중 성격문제, 정보부족, 흥미 부족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 효과와 함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으며, 미용 전공 대학생들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장벽을 자각할 때 이를 극복하여 원활한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표 16〉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 중 정보수집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정보 수집 행동	(상수)	3.783	.139	.	27.211	.000***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382	.050	.368	7.678	.000***	
	대인관계 어려움	-.008	.043	-.008	-.185	.853	
	경제적 어려움	-.028	.046	-.028	-.611	.541	
	자기 명확성 부족	-.212	.058	-.174	-3.656	.000***	
	흥미 부족	-.262	.055	-.231	-4.805	.000***	
	직업정보 부족	-.125	.042	-.141	-2.987	.003**	
	미래 불안	-.041	.048	-.042	-.853	.394	
	R=.412 R ² =.169 F=18.246***						
	2	(상수)	.992	.278	.	3.573	.000***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241	.047	.232	5.126	.000***
		대인관계 어려움	.008	.040	.008	.198	.843
		경제적 어려움	-.019	.042	-.019	-.453	.651
		자기 명확성 부족	-.083	.054	-.068	-1.526	.128
흥미 부족		-.136	.051	-.120	-2.665	.008**	
직업정보 부족		-.064	.039	-.073	-1.667	.096	
미래 불안		.012	.044	.013	.281	.778	
R=.557 R ² =.310 F=35.172*** ΔR^2 =.141 $\Delta F=127.784$ **							
3	(상수)	1.651	.297	.	5.563	.000***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352	.048	.338	7.387	.000***	
	대인관계 어려움	-.010	.041	-.010	-.232	.816	
	경제적 어려움	-.081	.044	-.082	-1.834	.067	
	자기 명확성 부족	-.127	.056	-.104	-2.259	.024*	
	흥미 부족	-.174	.053	-.153	-3.274	.001**	
	직업정보 부족	-.102	.040	-.115	-2.546	.011*	
	미래 불안	.004	.046	.004	.081	.936	
R=.497 R ² =.247 F=25.649*** ΔR^2 =.078 $\Delta F=64.510$ **							
4	(상수)	2.300	.310	.	7.408	.000***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409	.049	.394	8.350	.000***	
	대인관계 어려움	-.013	.043	-.014	-.313	.754	
	경제적 어려움	-.034	.045	-.034	-.752	.452	
	자기 명확성 부족	-.171	.057	-.141	-2.993	.003**	
	흥미 부족	-.201	.055	-.177	-3.678	.000***	
	직업정보 부족	-.106	.041	-.119	-2.574	.010*	
	미래 불안	-.035	.047	-.036	-.743	.458	
R=.453 R ² =.205 F=20.194*** ΔR^2 =.036 $\Delta F=28.262$ **							
5	(상수)	2.138	.208	.	10.253	.000***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264	.048	.254	5.532	.000***	
	대인관계 어려움	.012	.040	.012	.299	.765	
	경제적 어려움	-.034	.042	-.035	-.804	.421	
	자기 명확성 부족	-.173	.054	-.142	-3.197	.001**	
	흥미 부족	-.210	.051	-.185	-4.122	.000***	
	직업정보 부족	-.040	.040	-.045	-1.009	.313	
	미래 불안	.004	.044	.004	.092	.927	
R=.534 R ² =.285 F=31.148*** ΔR^2 =.116 $\Delta F=101.048$ **							

* $p < .05$, ** $p < .01$, *** $p < .001$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을 독립변수로 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계획수립’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진로준비행동 중 ‘실천적 노력행동’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변수는 $\beta = .271 > \beta = .131$ 임을 확인하였고, ‘자기 명확성 부족’ 변수도 $\beta = -.231 > \beta = -.121$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흥미 부족’ 변수도 $\beta = -.371 > \beta = -.256$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변수는 $\beta = .113 < \beta = .123$ 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계획수립’ 매개변수는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변수와 ‘자기 명확성 부족’ 변수, ‘흥미 부족’ 변수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을 독립변수로 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자기평가’를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진로준비행동 중 ‘실천적 노력행동’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변수는 $\beta = .271 > \beta = .236$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기 명확성 부족’ 변수도 ‘ $\beta = -.231 > \beta = -.149$ 임을 확인할 수 있고, ‘흥미 부족’ 변수도 $\beta = -.371 > \beta = -.279$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자기평가’ 매개변수는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변수와 ‘자기 명확성 부족’ 변수, ‘흥미 부족’ 변수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있었다.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을 독립변수로 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목표선택’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진로준비행동 중 ‘실천적 노력행동’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변수는 $\beta = .271 < \beta = .305$ 로 나타나 유의하지 않았고, ‘경제적 어려움’ 변수는 $\beta = .113 > \beta = .106$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한 것으로 보였으며, ‘자기 명확성 부족’ 변수도 $\beta = -.231 > \beta = -.188$ 임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흥미 부족’ 변수도 $\beta = -.371 > \beta = -.301$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목표선택’ 매개변수는 ‘경제적 어려움’ 변수와 ‘자기 명확성 부족’ 변수, ‘흥미 부족’ 변수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있었다.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을 독립변수로 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정보수집’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진로준비행동 중 ‘실천적 노력행동’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변수는 $\beta = .271 > \beta = .191$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였고, ‘경제적 어려움’ 변수도 $\beta = .113 > \beta = .109$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기 명확성 부족’ 변수도 $\beta = -.231 > \beta = -.208$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하였고, ‘흥미 부족’ 변수도 $\beta = -.371 > \beta = -.339$ 였으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정보수집’ 매개변수는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변수와 ‘경제적 어려움’ 변수, ‘자기 명확성 부족’ 변수, ‘흥미 부족’ 변수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장벽과 실천적 노력행동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영(2011)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진로 결정자들이 상대적으로 진로 미결정자들보다 진로장벽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한 개인이 성공적으로 진로목표를 달성하게 하고,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 현실적인 계획과 자기인정을 하게 하는 행동을 증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유미정, 최애경(2008)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분석하였는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함으로써 진로장벽에 자각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은선 외(2018)의 연구에서도 학점은행제 연극전공자

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장벽이 진로결정효능감을 매개로 하는 경우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은 낮아지지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거치게 되면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을 방해할 경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고취해야 하고,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기대와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합리적인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에 대한 탐색이 밑바탕이 된다면, 진로 결정에 편안함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진로와 관련한 준비 행동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표 17〉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 중 실천적 노력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1	(상수)	4.285	.143	-	30.046	.000***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294	.051	.271	5.757	.000***	
	대인관계 어려움	-.021	.045	-.021	-.468	.640	
	경제적 어려움	.117	.047	.113	2.489	.013*	
	자기 명확성 부족	-.294	.059	-.231	-4.943	.000***	
	흥미 부족	-.439	.056	-.371	-7.853	.000***	
	직업정보 부족	.011	.043	.012	.252	.801	
	미래 불안	-.037	.049	-.037	-.767	.443	
	R=.444 R ² =.198 F=22.015***						
	2	(상수)	1.266	.281	-	4.499	.000***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142	.048	.131	2.967	.003***	
대인관계 어려움		-.004	.040	-.004	-.091	.927	
경제적 어려움		.126	.042	.123	2.992	.003***	
자기 명확성 부족		-.154	.055	-.121	-2.808	.005***	
흥미 부족		-.303	.052	-.256	-5.860	.000***	
직업정보 부족		.076	.039	.083	1.958	.051	
미래 불안		.020	.044	.020	.446	.656	
계획수립		.631	.052	.459	12.056	.000***	
R=.591 R ² =.349 F=41.875*** ΔR^2 =.151 ΔF =145.356***							
3	(상수)	1.642	.297	-	5.528	.000***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256	.048	.236	5.372	.000***	
	대인관계 어려움	-.023	.041	-.022	-.550	.582	
	경제적 어려움	.051	.044	.050	1.161	.246	
	자기 명확성 부족	-.189	.056	-.149	-3.353	.001**	
	흥미 부족	-.330	.053	-.279	-6.208	.000***	
	직업정보 부족	.040	.040	.043	.989	.323	
	미래 불안	.017	.046	.017	.381	.703	
	자기평가	.572	.058	.373	9.943	.000***	
	R=.554 R ² =.307 F=34.632*** ΔR^2 =.110 ΔF =98.856***						
4	(상수)	2.265	.313	-	7.238	.000***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331	.049	.305	6.694	.000***	
	대인관계 어려움	-.028	.043	-.028	-.654	.513	
	경제적 어려움	.109	.045	.106	2.414	.016*	
	자기 명확성 부족	-.239	.058	-.188	-4.136	.000***	
	흥미 부족	-.356	.055	-.301	-6.467	.000***	
	직업정보 부족	.037	.041	.040	.890	.374	
	미래 불안	-.029	.047	-.029	-.624	.533	
	목표선택	.403	.056	.282	7.182	.000***	
	R=.509 R ² =.259 F=27.268*** ΔR^2 =.061 ΔF =51.587***						
5	(상수)	3.077	.222	-	13.851	.000***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207	.051	.191	4.075	.000***	
	대인관계 어려움	-.006	.043	-.006	-.141	.888	
	경제적 어려움	.112	.045	.109	2.479	.013*	
	자기 명확성 부족	-.265	.058	-.208	-4.609	.000***	
	흥미 부족	-.401	.054	-.339	-7.393	.000***	
	직업정보 부족	.073	.042	.079	1.726	.085	
	미래 불안	-.005	.047	-.005	-.099	.921	
	정보수집	.293	.042	.265	6.927	.000***	
	R=.505 R ² =.255 F=26.708*** ΔR^2 =.057 ΔF =47.990***						

*p<.05, **p<.01, ***p<.001

2)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 중 정보수집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표 18>과 같다. 미용 전공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계획수립'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진로준비행동 중 '정보수집행동'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자립성' 변수는 $\beta = -.205 < \beta = -.230$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확고성' 변수는 $\beta = .352 > \beta = .144$ 임을 확인하여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계획성' 변수도 $\beta = .231 > \beta = .153$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계획수립' 매개변수는 '확고성' 변수와 '계획성' 변수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자기평가'를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진로준비행동 중 '정보수집행동'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자립성' 변수는 $\beta = -.205 < \beta = -.270$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고성' 변수는 $\beta = .352 > \beta = .229$ 로 확인되어 유의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변수도 $\beta = .231 > \beta = .186$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하였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자기평가' 매개변수는 '확고성' 변수와 '계획성' 변수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있었다.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목표선택'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진로준비행동 중 '정보수집행동'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자립성' 변수는 $\beta = -.205 < \beta = -.274$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확고성' 변수는 $\beta = .352 > \beta = .317$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계획성’ 변수도 $\beta = .231 > \beta = .201$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하였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목표선택’ 매개변수는 ‘확고성’ 변수와 ‘계획성’ 변수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있었다.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정보수집’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진로준비행동 중 ‘정보수집행동’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자립성’ 변수는 $\beta = -.205 > \beta = -.188$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였고, ‘확고성’ 변수도 $\beta = .352 > \beta = .241$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계획성’ 변수도 $\beta = .231 > \beta = .169$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정보수집’ 매개변수는 ‘자립성’ 변수와 ‘확고성’ 변수, ‘계획성’ 변수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으며 정보수집행동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진로성숙도가 높은 대학생일수록 정보수집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고경필, 심미영, 2014)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자신에게 맞는 직업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되고, 직업적 성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고 진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동 수준도 상승된다고 할 수 있다.

〈표 18〉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 중 정보수집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1	(상수)	1.327	.253		5.236	.000***
	자립성	-.311	.063	-.205	-4.920	.000***
	확고성	.439	.058	.352	7.595	.000***
	계획성	.322	.062	.231	5.207	.000***
	R=.449 R ² =.202 F=53.073***					
2	(상수)	.751	.238		3.152	.002**
	자립성	-.347	.058	-.230	-5.987	.000***
	확고성	.179	.058	.144	3.092	.002**
	계획성	.213	.058	.153	3.701	.000***
	계획수립	.594	.054	.451	10.957	.000***
R=.574 R ² =.330 F=77.343*** ΔR^2 =.128 $\Delta F=120.062$ ***						
정보 수집 행동	(상수)	.883	.253		3.488	.001**
	자립성	-.408	.063	-.270	-6.520	.000***
	확고성	.284	.060	.229	4.726	.000***
	계획성	.260	.060	.186	4.300	.000***
	자기 평가	.449	.066	.305	6.817	.000***
R=.507 R ² =.257 F=54.296*** ΔR^2 =.055 $\Delta F=46.471$ ***						
4	(상수)	1.162	.254		4.569	.000***
	자립성	-.414	.068	-.274	-6.084	.000***
	확고성	.394	.058	.317	6.762	.000***
	계획성	.280	.062	.201	4.514	.000***
	목표 선택	.239	.062	.174	3.824	.000***
R=.469 R ² =.220 F=44.321*** ΔR^2 =.018 $\Delta F=14.620$ ***						
5	(상수)	.871	.241		3.618	.000***
	자립성	-.284	.059	-.188	-4.823	.000***
	확고성	.300	.056	.241	5.379	.000***
	계획성	.235	.058	.169	4.035	.000***
	정보수집	.377	.039	.356	9.759	.000***
R=.554 R ² =.307 F=69.566*** ΔR^2 =.105 $\Delta F=95.231$ ***						

*p<.05, **p<.01, ***p<.001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계획수립’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진로준비행동 중 ‘실천적 노력행동’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확고성’ 변수는 $\beta = .351 > \beta = .202$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계획성’ 변수는 $\beta = .277 > \beta = .21$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계획수립’ 매개변수는 ‘확고성’ 변수와 ‘계획성’ 변수에 대해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자기평가’를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진로준비행동 중 ‘실천적 노력행동’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확고성’ 변수는 $\beta = .351 > \beta = .253$ 임을 확인하였고, ‘계획성’ 변수는 $\beta = .277 > \beta = .241$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자기평가’ 매개변수는 ‘확고성’ 변수와 ‘계획성’ 변수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있었다.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목표선택’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진로준비행동 중 ‘실천적 노력행동’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확고성’ 변수는 $\beta = .351 > \beta = .331$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계획성’ 변수는 $\beta = .277 > \beta = .260$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목표선택’ 매개변수는 ‘확고성’ 변수와 ‘계획성’ 변수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용 전공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정보수집’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진로준비행동 중 ‘실천적 노력행동’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확고성’ 변수는 $\beta = .351 > \beta = .302$ 임을 확인하였으며, ‘계획성’ 변수는 $\beta = .277$

> $\beta = .250$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정보수집’ 매개변수는 ‘확고성’ 변수와 ‘계획성’ 변수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미용 전공 대학생들이 진로에 관해 목표설정을 하고 직업정보를 수집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자기평가를 통해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실천적 노력행동을 촉진시키고 진로성숙 수준을 향상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미래계획 요인과 직업정보 요인이 진로준비동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난 이명숙(2002)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조명실(2007)의 연구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과 진로성숙의 요인은 서로 상관이 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이 진로성숙에 대해 중요한 예언변수가 된다고 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미용 전공 대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확고히 하는 것과 목표 성취에 대한 신념을 통해, 진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실천적인 노력을 돕는다고 추론할 수 있다.

〈표 19〉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 중 실천적 노력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실천적 노력 행동	1	(상수)	.095	.246	.	.386	.700
		자립성	-.013	.061	-.008	-.216	.829
		확고성	.456	.056	.351	8.116	.000***
		계획성	.403	.060	.277	6.699	.000***
	R=.554 R ² =.307 F=92.950***						
	2	(상수)	-.334	.241	.	-1.390	.165
		자립성	-.041	.059	-.026	-.693	.489
		확고성	.262	.059	.202	4.478	.000***
		계획성	.321	.058	.221	5.531	.000***
		계획수립	.443	.055	.322	8.095	.000***
	R=.610 R ² =.372 F=93.234*** ΔR^2 =.065 $\Delta F=65.526$ ***						
	3	(상수)	-.271	.249	.	-1.091	.276
		자립성	-.094	.062	-.060	-1.528	.127
		확고성	.328	.059	.253	5.553	.000***
		계획성	.351	.059	.241	5.922	.000***
		자기평가	.371	.065	.242	5.733	.000***
R=.584 R ² =.341 F=81.454*** ΔR^2 =.034 $\Delta F=32.864$ ***							
4	(상수)	-.001	.249	.	-.002	.998	
	자립성	-.073	.067	-.047	-1.101	.271	
	확고성	.430	.057	.331	7.528	.000***	
	계획성	.378	.061	.260	6.222	.000***	
	목표선택	.139	.061	.097	2.267	.024*	
R=.559 R ² =.312 F=71.456*** ΔR^2 =.006 $\Delta F=5.140$ *							
5	(상수)	-.111	.248	.	-.449	.654	
	자립성	-.001	.061	-.001	-.022	.983	
	확고성	.393	.057	.302	6.855	.000***	
	계획성	.363	.060	.250	6.059	.000***	
	정보수집	.171	.040	.155	4.301	.000***	
R=.572 R ² =.327 F=76.273*** ΔR^2 =.020 $\Delta F=18.496$ ***							

*p<.05, **p<.01, ***p<.001

V. 결 론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용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차이와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을 포함하여 전국에 소재한 2년제·4년제 대학교에서 미용 관련 전공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634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분석을 살펴보면, 학년이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크게 자각하고 있었으며, 미용 전공 4년제 재학 중인 학생보다 2년제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진로장벽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헤어 전공 학생들은 흥미가 부족한 경우가 높았고, 메이크업 전공의 경우 미래 불안이 높았다. 또한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는 낮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미용 전공 대학생이 희망하는 진로 유형에서는 사무직이나 미정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미용 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계획수립에 대한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은 정의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으며, 자기 명확성 부족, 흥미 부족, 직업정보 부족 요인은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기평가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정의 영향이 있었으며, 자기 명확성 부족, 흥미 부족은 부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표선택에 대해서는 흥미 부족이 부의 유의한 영향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수집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과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직업정보 부족과

부의 영향이 있었다.

셋째, 미용 전공 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계획수립은 확고성, 계획성과 정의 유의한 영향이 있었으며, 자기평가는 모든 요인이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표선택에 대한 진로성숙도 모든 요인은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정보수집은 확고성과 계획성이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미용 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진로준비행동 중 정보수집행동에 대한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은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고, 자기 명확성 부족, 흥미 부족, 직업정보 부족은 부의 영향이 있었다. 실천적 노력행동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이 정의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자기 명확성 부족, 흥미 부족은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미용 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진로준비행동 중 정보수집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에서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고, 자기 명확성 부족, 흥미 부족, 직업정보 부족에 대해서는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실천적 노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고 자기 명확성 부족, 흥미 부족에서는 완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여섯째, 미용 전공 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진로준비행동 중 정보수집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자립성과 완전 매개효과가 있었고, 확고성과 계획성은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실천적 노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을 때 확고성과 계획성에서 부분 매개효과 있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미용 전공 대학생에 대한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며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는 방해 또는 촉진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진로장벽 중 부모와의 갈등이나, 집안 사정과 같은 외적인 요인은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진로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자신감 부족 등 심리적 장벽을 많이 자각할수록 직업과 삶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미용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확실한 태도와 적극적인 준비를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처리, 인지 왜곡, 비합리적 신념 등으로 인해 학업에 무력감을 느끼지 않도록 인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으며, 진로에 대한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진로 경험을 위한 인턴십, 상담센터의 기능, 조직 간의 인간관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진로 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요인들 간의 연관성을 밝혀 진로상담과 지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는 자기보고식 검사지를 이용한 조사연구이기 때문에, 자료수집 과정에 주관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인의 주관적 요인이나 상황적 요인들에 의하여 연구 결과의 객관성에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조사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 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영향변수로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진로준비행동을 선정하였으나 그 이외의 사회적 지지, 학습몰입, 셀프리더십 등 다양한 변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이나 행동적인 변인을 추가하여 진로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진로장벽 자각은 어떤 학생에게 있어 진로 의사결정과정을 방해하지만, 다른 학생에게는 효과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촉매제의 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로 탐색을 통한 자신감과 능력을 우선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용 전공 학생들의 진로 발달과 진로성숙을 위해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후속 연구에서는 진로 결정에 필요한 교육과정, 인턴십 프로그램과 같은 진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한 사례 연구가 병행된다면 더욱 많은 경험적 자료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고경필, 심미영 (2014),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진로성숙 및 진로 준비행동의 구조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27(1), pp. 19-38.
- 감승자, 김정원 (2019), 한국 이·미용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인식 연구, *예술 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11), pp. 1-14.
- 강미영 (2020), 대학생의 진로역량 교육 요구도 분석, *취업진로연구*, 10(3), pp. 23-47.
- 강명희, 강민정 (2015), 대학생이 자각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수준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방법연구*, 27(4), pp. 489-510.
- 강영미, 유순화, 윤경미 (2009), 전문계 고등학생이 자각한 진로장애와 자아 탄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 pp. 415-438.
- 강영숙, 이은정 (2006),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 만족도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5(1), pp. 1-22.
- 강재연 (2009), *한국 대학생의 진로타협과 진로관련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 진로태도성숙,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개인주의-집합주의 성향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현희 (2015), 폴리텍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8(1), pp. 59-78.
- 강혜순 (2015), *항공·관광 서비스 전공자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학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희순 (2010), 대학생의 성별, 학년, 진로 의식이 진로 개발 준비도 및 진로

- 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실천연구*, 9(3), pp. 83-104.
- 고태용 (2008),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이 대학생들의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은숙 (2015), *Holland 진로 성격 유형에 따른 미용 전공 대학생의 가치관과 전공 만족도 및 진로성숙도 분석*,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해미, 황선주 (2014),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향후 진로방향과 직업 선택에 선택에 관한 연구*, *미용예술경영연구*, 8(3), pp. 8-19.
- 김기홍 (2019), *대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학습 몰입,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핵심역량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수 (2010), *체육전공자의 진로장벽검사 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자 (2016), *대학생의 진로 신념과 관련 요인들의 관계구조 분석*,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화 (2016), *성격특성, 자기관리, 진로 태도가 대학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말선 (2011),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진로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진로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숙 (2008), *중등 학생의 가족 체계 자각, 완벽주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 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숙 (2019) *간호대학생의 직업 가치관, 진로태도 성숙도가 취업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11), pp. 96-105.
- 김민정 (2016), *대학생들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9(2), pp. 89-107.

- 김보미 (2020), *지방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경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9(1), pp. 311-333.
- 김상호, 정은성 (2016), *조리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스트레스, 전공 만족, 진로태도성숙의 영향관계*, *이벤트 컨텐션 연구*, 12(1), pp. 31-50.
- 김서리 (2018), *취업준비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진로장벽 및 취업준비행동이 심리적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경 (2017), *청소년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중 (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리 (2005),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 사고가 청소년 진로 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지, 이정자 (2013),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20(1), pp. 119-136.
- 김아름, 이지희, 최보영 (2010),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발달에 관한 5년 종단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2(3), pp. 843-862.
- 김아영 (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변인 연구*, *교육심리연구*, 1(2), pp. 1-19.
- 김연중 (2011), *이차원적 진로 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학습 행동*,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경 (2020), *고등학생 집단의 성별에 따른 진로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차이 및 영향 변인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현, 김우진, 민왕식, 양영모, 곽한병 (2013), 전공 만족과 무도 만족이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시큐리티연구*, 1(36), pp. 57-92.
- 김영혜 (2013), *대학생의 부모-자녀 유대와 진로결정 관계에서 성취압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희 (2007), *무용전공 대학생의 무용성취수준이 무용학업적응과 진로결정 태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영 (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선, 김종표, 이종찬 (2018), 학점은행제 연극전공자의 진로장벽, 전공 만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진로교육연구*, 31(1), pp. 131-151.
- 김인아 (2013), 연구보고서 - 미용업 근로자의 작업환경 유해요인과 건강 영향 연구, *산업보건*, 305(1), pp. 53-56.
- 김종상 (2018), *여행사 종사원들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 간의 영향 관계 분석 : 계획된 우연 기술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서 외(2005), *평생교육학개론*, 서울 : 교육과학사.
- 김종운, 공성화 (2019),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의 부모 - 자녀 의사소통이 진로 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4), pp. 417-435.
- 김종운, 박성실 (2013), 전문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진로교육연구*, 26(3), pp. 123-141.

- 김충기 (1983), *진로교육의 본질*, 서울 : 평민사.
- 김태환 (2019), *대학생의 진로 선택 몰입과 가족지지, 취업 불안, 진로탐색행동, 자율적 진로탐색동기의 구조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나용주, 윤병섭 (2017),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영컨설팅 연구*, 17(1), pp. 135-150.
- 노윤신 (2016), *대학생의 진로 적응력과 주도적 성향, 불확실성 불관용, 진로 탐색행동 및 진로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은주 (2016), *미용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 스트레스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관계 분석*,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2(3), pp. 157-168.
- 류인평, 강동원, 이재곤 (2019), *대학생 교육서비스품질이 전공 만족, 전공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Tourism Research*, 44(3), pp. 81-106.
- 류장수 (2005),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 : 수도권 대학졸업생과 비교 분석*, *노동경제논집*, 28(2), pp. 1-27.
- 문숙정 (2015), *학습자의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교 만족 및 학습 지속 의향 간의 구조적 관계 규명*,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기현 (2019), *무용 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관련 사회인지적 요인들과 진로 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명심 (2008), *고등학생용 진로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 개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종욱 (2016), *헤어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에 따른 성취동기와 진로태도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윤 (2017),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관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미, 장석진 (2013), *가족 지지와 청소년 진로태도 성숙과의 관계에서 자기*

- 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1(1), pp. 1-21.
- 방효진 (2019), 미용전공 대학생의 전공몰입도와 진로태도성숙도 관련성, *대한미용학회지*, 15(1), pp. 69-77.
- 방효진, 박정신 (2014), 미용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20(1), pp. 101-109.
- 배진희 (2019), *자유학기제 참여 중학생의 박물관 직업체험활동 만족도에 대한 연구 : 사회적지지, 진로의사결정, 진로성숙도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연옥, 심혜숙 (2015), 고등학생의 자기 결정성이 진로장벽 자각과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교육혁신연구*, 25(1), pp. 59-74.
- 서봉연, 공은화, 김미희, 김경식 (2015), 청소년기 진로성숙이 취업 준비기 심리 요인에 미치는 영향 :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학논총*, 36(1), pp. 1-21.
- 서예지 (2016), *미용 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희정, 윤명희 (2011), 대학생용 진로준비행동검사의 개발 및 진로행동분석, *진로교육연구*, 24(3), pp. 117-134.
- 석혜정, 이종숙 (2016), 뷰티 전공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구조적 관계, *대한미용학회지*, 12(4), pp. 357-366.
- 손경환 (2021), *민간 경비업 종사자의 진로장벽이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은령 (2001), *여자 대학생이 자각한 진로장벽*,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은령, 손진희 (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한국심리학회지*, 17(2), pp. 399-417.

- 송영선, 송현정 (2015), 지방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태도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3), pp. 21-42.
- 송윤정, 조규판 (2015), 대학생의 전공 만족도와 학습몰입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4), pp. 355-374.
- 송현심, 홍혜영 (2010),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3), pp. 1325-1350.
- 신영식, 권오혁 (2018), 미용 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 회복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4(1), pp. 343-353.
- 신지영, 박성실, 형정은 (2012), 전문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5(1), pp. 19-35.
- 심정호 (2016), *무용전공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수영 (2008), *지방대 여학생의 취업장벽과 취업 준비*,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혜경 (2008), *희망, 부모지지,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기종 (2015), *직업탐색행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명숙, 박민경 (2008), 가족 건강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9(4), pp. 1409-1429.
- 양은주 (2017), *실용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나라 (2018), *조리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품질이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학위논문.

- 오윤경 (2013), 미용 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19(5), pp. 937-944.
- 원상희 (2013),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진로성숙도의 발달궤적 : 자기통제의 중단적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미정, 최애경 (2008),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상업교육연구*, 19(1), pp. 129-153.
- 유수복 (2013),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 자기결정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준현, 최지영 (2020),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효과분석, *인간발달연구*, 27(2), pp. 119-139.
- 윤지수 (2020), *기업가 정신이 진로성숙도 및 창업 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건우, 최바울 (2020), 공학계열 대학생의 심리적, 환경적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희망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3(1), pp. 109-129.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 자아존중감, 직업가치, 내외통제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2(1), pp. 127-136.
- 이미지, 추소원, 이정현 (2016), 미용 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인체미용*

예술학회지, 17(2), pp. 57-71.

이민선, 이윤정, 문희강 (2010), 보문 : 서울지역 의류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4(11), pp. 1870-1879.

이은경 (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은아, 김경환, 황인철, 권태일 (2020), 직업훈련학교 미용취업준비 여성
훈련생의 진로준비행동이 취업 관심도와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제보건미용학회지, 14(1), pp. 79-91.

이용주 (2021), *경력단절여성의 진로태도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한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보현, 나윤영 (2020), 미용 관련 자격증 취득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전공 만족도, 진로인식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6(2),
pp. 401-411.

이상민, 남숙경, 박희량, 김동현 (2007), 단축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척도의
구인타당도 재점검, *상담학연구*, 8(3), pp. 1047-1062.

이상희 (2005), *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 진로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성식 (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
수준의 인과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순희 (2012), *대학생의 낙관성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 적응성의 관계*, 충남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영일 (2015), *연기전공대학생의 수업 참여동기, 연기표현성,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은경 (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희, 이지민, (2013), 청소년이 자각한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5), pp. 19-32.
- 이제경, 김동길 (2004), 한국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심리적 특성, *한국상담학회*, 5(4), pp. 993-1016.
- 이종원 (2014),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진로 동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찬 (2013),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주 (2008), *대학생의 이미지 평가 및 이미지 형성이 진로자기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대혁 (2018), *미용대학 교수자·학습자 간 커뮤니케이션이 교육만족도 및 학습몰입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미지, 박은준 (2017),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전공 인식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화장품미용학회지*, 7(2), pp. 129-137.
- 임언, 정윤경, 상경아 (2001), *진로성숙도 검사 개발 보고서*, 서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석민, 임두순, 송병국 (1991),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장용희, 이재신, 신의수 (2016), 지방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 주관적 행복감의 매개효과, *교육종합연구*, 14(3), pp. 163-184.
- 전현진 (2015), 미용 전공 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와 전공 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21(6), pp. 1212-1223.
- 정민주, 박인혜 (2015),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전공 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

-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7(1), pp. 213-232.
- 정진선 (2001),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이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및 진로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진희 (2012),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철영, 최동선, 김진구 (2002), *전문대학의 진로지도 체제 개편 및 운영 방안*, *농업교육연구*, 21(1), pp. 71-91.
- 정희영 (2010), *미용 전공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따른 전공 만족도 및 진로 성숙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환호 (2016), *음악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과 진로선택 및 진로장벽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명실 (2007),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 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아미 (2000),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과 진로성숙의 결정요인으로서의 진로 의사결정효능감*, *교육학연구*, 38(4), pp. 43-62.
- 조현재 (2014), *대학생의 개인특성이 진로 미결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33(4), pp. 103-127.
- 조현정, 정창곡 (2020), *대학 교육서비스 품질이 대학생들의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26(1), pp. 8-18.
- 주명원, 김성남 (2015), *미용업 종사자의 작업환경과 보건·안전 의식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3), pp. 1725-1731.
- 주인숙 (2017), *대학생이 인지한 학교지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교 만족과 학습 지속 의향 간의 구조적 관계 규명*,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진현정 (2011), *대학생의 부모 애착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동선 (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 행동과 동기 요인, 애착 간의 관계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숙현 (2007),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태도성숙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은영 (2011), *대학생의 진로결정 유형별 특성과 진로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은주, 김영란 (2012),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체 미용예술학회지*, 13(3), pp. 45-58.
- 최정인 (200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상담태도, 진로상담에 대한 기대와 상담성과 간의 관계 모형*,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탁진국 (1996), *조직구성원의 경력개발 장애요인에 대한 자각*, *한국심리학회지*, 9(1), pp. 25-36.
- 탁진국, 이기학 (2001), *직업 결정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경영 연구*, 1(1), pp. 167-180.
- 한영숙 (1997), *수도권 전문대학 미용관련과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2(1), pp. 259-279
- 홍은선 (2020),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 및 진로선택몰입의 구조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영옥 (2011), *가족체계, 완벽주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간의 관계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국외 문헌

- Bandura, A. (1999),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13(2), pp. 158-166.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 Blustein, D. L. (1997), A context-rich perspective of career exploration across the life role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1), pp. 260-274.
- Brown, M. T., Eisenberg, A. I., & Sawilowsky, S. S. (1997), Traditionality and the Discriminating Effect of Expectations of Occupational Success and Occupational Values for Women within ath-Oriented Field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3), pp. 418-431.
- Crites, J. O. (1961), A model for the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8(3), pp. 255-259.
- Crites, J. O. (1969),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 Ginzberg, E., Ginsberg, S.W., Axelrad, S., & Herma, J. L. (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ribbons, W. D., & Lohnes, P. R. (1964), Relationships among measures of readiness for vocational plan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1(1), pp. 13-19.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pp. 326-339.

- Herr, E. L., & Cramer, S. H. (1988),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through the life span: Systematic approaches*, Scott, Foresman&Co.
- Herr, E. L., & Enderlein, T. E. (1976), Vocational maturity: The effects of school, grade, curriculum, and sex,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2), pp. 227–238.
- Holland, J. J., Gottfredson, D. C., & Power, P. G. (1980),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6), pp. 1191–1200.
- Holland, J. L., & Holland, J. E. (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5), pp. 404–414.
- Hoyt, K. B. (1977), *The School Counselor and Career Education*, Washington, D. 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Lee, J. I.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self-efficacy expectations and career decision status at the college level in Korea*, The Ohio State University.
- Leso, J. F., & Neimeyer, G. J. (1991), Role of gender and construct type in vocational complexity and choice of academic major,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38, pp. 182–188.
- Lent, R. W., Brown, S. T.,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a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pp. 36–49.
- London, M. (1997), Overcoming career barriers: A model of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es for realistic appraisal and constructive cop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4(1), pp. 25–38.

- Luzzo, D. A. (1993), Value of career decision-making attitudes and skil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2), pp. 194–198.
- Luzzo, D. A. (1997), *Correlates of Mex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Career Related Barrie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
- Patton, W. & Creed, P. A. (2001), Developmental issues in career maturity and career decision statu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9(4), pp. 336–351.
- Powell, D. F. & Luzzo, D. A. (1998), Evaluating Factors associated with the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7(2), pp. 145–158.
- Slaney, R. B. (1980), An investigation of racial differences on vocational variables among college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 pp. 197–207.
- Super, D. E. (1955), Dimensions and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s College Record*, 57, pp. 151–163.
- Super, D. E. (1969), Vocational development theory: Persons, positions, and processes, *Perspectives on Vocational Development*, 1(1), pp. 13–33.
- Swanson, J. L., & Tokar, D. M. (1991a),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8(1), pp. 92–106.
- Swanson, J. L., & Tokar, D. M. (1991b),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9(3), pp. 344–261.

- Swanson, J. L., Daniel, K. K., & Tokar, D. M. (1996), Assessing perceptions of career barriers: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pp. 219–244.
- Swanson, J. L., & Woitke, M. B. (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 pp. 443–462.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pp. 63–81.

기타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2018),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2020), 교육통계연보

경향신문 (2019), “미용실 스태프는 언제쯤 착취당하지 않을까”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910051153001>

(검색일자 : 2021. 02. 03.)

뉴시스 (2021), 대학생 53.7% "코로나 이후 진로·전공 변경 고민"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6_0001060729

(검색일자 : 2021. 01. 17)

의학신문 (2021), “코로나19 화장품 트렌드도 바꾸었다”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3473>

(검색일자 : 2021. 01. 03)

진로 - 네이버 어학사전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12961>

[&cid=42126&categoryId=42126](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12961&cid=42126&categoryId=42126)

(검색일자 : 2021. 01. 17)

장벽 - 네이버 어학사전 : <https://ko.dict.naver.com/#/entry/koko/bc4a18451e8743b985de00e327604315>

(검색일자 : 2021. 01. 17)

통계청 (2021), 2021년 2월 고용동향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11681>

(검색일자 : 2021. 02. 09)

한국경제연구원 (2021), 2021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http://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9>

(검색일자 : 2021. 01. 11)

한국고용정보원 (2021), 2021 한국직업전망

행복한 교육 2014년 6월호 (2014), “진로장벽,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https://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bbsId=BB SMSTR_000000000200&nttId=2877

(검색일자 : 2021. 02. 25)

KOTRA (2020), “코로나19 이후 미국 뷰티산업 전망”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1690> (검색일자 : 2021. 03. 23)

ABSTRACT

The effect of career barrier and career maturity of
beauty major college students on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Song Yeon Jae

Dep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Choosing a job by considering our own ability, interests, values and personalities includes meaning of self-realization and it also connotes important meaning in terms of society. In addition, jobs and careers individuals don't want have a negative effect in terms of self-realization and psychology.

Time of university is when to understand one's identity and grow into mature member of society. But many Korean college students are having maladaptation issue due to university entrance that is just focused on academic records rather than choosing career by having enough consideration in their talents in the process of career choice.

Beauty major college students are having difficulties in choosing career after graduation even through they spent costs and time to enter the desired university or departments, and they even change other fields of occupation.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career barrier and career maturity of beauty major college students on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634 male and female students who are attending beauty-related departments, and the survey method was used.

For the career barriers, 7 factors which are conflicts with others, difficulties in personal relationship, economic difficulties, insufficient self-clarity, insufficient interests, insufficient occupational information and anxiety for future were used. For the career maturity, 3 factors which are independence, firmness and planning were used. 4 factors which are establishment of plan, self-evaluation, target choice and information collection were used for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 and 2 factors of information collection behavior and practical effort behavior were used fo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analyzing data,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alysis of variance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by using SPSS 25.0 statistical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differences in career barrier, career maturity,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beauty major college students, it was found that career barrier were higher with higher grades and lower satisfaction in major, but career maturity,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highly recognized and behaved as the satisfaction in major is higher.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four-year-course college students

showed lower career barrier and higher career maturity,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an that of two-year-course college students.

Second, in terms of relationship which career barrier of beauty major college students affects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 it was found that career barrier does not always act as a negative factor on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 and sub-factors of career barrier and factors wi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 to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 were mix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pecifically identify career barrier felt by students through differentiated consultation that suits personal circumstances rather than uniform career consultation to increase the level of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

Third, in terms of relationship which career maturity of beauty major college students affects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 i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firmness and planning of career maturity for planning establishment among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 and firmness, planning and independence were significant for self-evaluation. It was found that all variables of career maturity among target choice were significant, and firmness and planning were significant for information collection.

Fourth, in terms of relationship which career barrier and career maturity of beauty major college students affec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t was found that conflicts with others, economic difficulties, insufficient self-clarity, insufficient interests and insufficient occupational information were significant for career barrier factors and all factors of career maturity

were significant.

Fifth, in terms of relationship which career barrier of beauty major college students affec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results of mediator effect of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 found that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 had partial mediator effect only on conflicts with others and self-evaluation had partial mediator effect on insufficient interests and conflicts with important others, variables of insufficient self-clarity, insufficient interests and insufficient occupational information. Target choice had partial mediator effect on insufficient self-clarity, insufficient interests and insufficient occupational information and information collection had partial mediator effect on conflicts with important others, variables of insufficient self-clarity and insufficient interests.

Sixth, in terms of relationship which career maturity of beauty major college students affec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results of mediator effect of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 found that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 had partial mediator effect only on firmness and planning. Career barrier and career maturity had direct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s well as indirect effect through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 In other word, it could be judged that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 acts as catalyst to relieve perceived effect of career barrier and to promote effect of career maturity.

These study results confirmed the effect of career barrier and career maturity of beauty major college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self-efficiency in career decision and implies the necessity of increasing self-efficiency in career decision to enhance the level of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help to instruct beauty major college students by providing information on career barrier and basic data on leading preparation for employment that affect career development of beauty major college students.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본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연구자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 1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며, 연구 이외의 자료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성실한 응답은 연구에 매우 소중하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른 성의 있는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설문에 응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2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지도교수 : 김 경 희

연구자 : 송 연 재

E-mail: dusswo@gmail.com

I. 다음은 진로장벽 인식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진로장벽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유부단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취업이 잘 안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필요한 능력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좋지 않은 성적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선택한(할) 진로가 그다지 재미있는 것 같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흥미있는 일이나 선택하고 싶은 직업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졸업 후 내가 선택한 진로에 흥미가 점점 없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선택한 진로에 대한 흥미는 시간이 흐르면 바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원하는 진로의 성취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경제적 문제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돈을 빨리, 많이 벌어서 가정형편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경제적 문제로 인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5. 앞으로의 진로 선택은 경제적 문제의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진로는 부모님의 반대나 간섭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부모님과 집안 기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나의 진로 선택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19.	인간관계 내의 중요한 사람들이 내가 선택하려는 진로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부모님이 반대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직업으로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원하는 진로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여러 가지 직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4.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진로에 대한 자료를 얻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5.	시대가 빠르게 변해서 나의 진로에 대한 계획에 혼란을 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막연한 불안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때문에 나의 진로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8.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취업에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일과 관련된 어려움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더 큰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앞으로 직장생활 할 때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혼자서 일하는 것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인간관계가 좁은 편이기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은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진로성숙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 직종인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워 준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지금도 미래의 직장생활에 대해 상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계획한 진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을 롤모델로 삼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경제적인 면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갖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선택한 직업 분야에서 성공할 확고한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을 확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타인의 의견보다 자신이 희망하는 일을 선택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내가 정한 소신대로 직업을 선택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에게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직업선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원하는 생활방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관심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향후, 10년간의 직업 고용 경향을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직업의 평균 수입과 연봉을 알아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가 관심있는 분야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여러 가지 진로 목록들 중 내가 원하는 진로 목표를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 목록들 중에서 내가 희망하는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내가 선호하는 생활방식에 맞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일단 진로를 결정하고 나면, 그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관심있는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앞으로 5년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선택한 전공을 이수하는데 어떤 교과과정(교육과정)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나의 이력서를 멋지게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나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직종과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취업 면접에 필요한 절차들을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만약, 내가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는데 학업상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떤 방법들을 취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내가 선택한 전공이나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들을 힘든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처음 선택한 진로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목표를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처음 선택한 진로나 분야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전공이나 진로의 대안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진로준비행동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교수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관심 있는 직업 분야와 관련된 책이나 팸플릿(소책자) 등을 구입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진로와 관련된 교육기관이나 혹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알아보거나 안내 책자를 읽어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았거나 혹은 그 같은 방문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전시회, 설명회 등에 참관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진로 상담을 위하여 취업지원센터 또는 그 밖의 상담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최근에 관심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 서 교재, 참고서적 또는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교재, 참고서적 혹은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가지고 진로 준비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내가 깊이 관심 있는 업종 혹은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취업 방법, 보수, 승진제도, 전망)를 수집하였거나 수집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취업 혹은 진학)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